

“중등교육 내 진로연계학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교육 모델 제안:
해외 진로교육 사례를 기반으로”

<제목 차례>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
2. 연구 주제	4
3. 연구 방법	5

II. 본론

1. 진로연계학기 관련 선행연구 분석	6
가. 한국 진로교육의 개요	6
나. 진로연계학기 도입 배경: 기존 진로교육의 한계점	7
다. 진로연계학기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 방법	9
가.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필요성	9
나.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기대 효과	9
1) 덴마크	9
2) 아일랜드	10
3) 영국	10
3. 탐사 내용 정리	11
가. 국내 탐사 내용	11
나. 국내 청소년 설문조사 내용	12
다. 국내 전문가 인터뷰 내용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4
1) 기관 및 사업 소개	14
2) 사업 추진 프로세스	15
3) 진로교육 사업 실행자의 입장에서 PMI	15
라. 국내 전문가 인터뷰 내용 - 교사	16
마. 해외 탐사 및 인터뷰 내용	22
1) 덴마크	22

2) 아일랜드	29
3) 영국	38
4. 탐사의 시사점 및 한계	51
가. 탐사의 시사점	51
5. 진로연계학기 교육 모델 개발	53
가. 진로연계학기의 목표	53
나. 진로연계학기 운영 방안	54
1) 교과 연계 진로교육 강화	54
2) 지역사회 연계 직업체험 강화	56
3) 학생 주도형 진로탐색시간 확보	57
다. 진로연계학기 평가 방안	58
6. 탐사의 한계	63
III. 결론	
1. 연구 요약	64
2.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64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며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한 인간-기계 협업 강화, 유연한 형태의 고용 확산, 미래 사회 핵심 역량 전환 등 급격한 노동 환경 변화가 예상되기에(박유리 등, 2019)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며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진로 탐색 경험 및 교과목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자율성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과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곧,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인 중학교 수준에서 양질의 진로교육을 경험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진로성숙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진로교육은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많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가 단순 흥미/재미 위주의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일반학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실질적/장기적인 진로 결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등의 지적(정문주, 백승환, 최현희, 조준호, 2020; 김리나, 엄문영, 2024; 박균열, 2023)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팀이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학생 설문 시에는 항상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으나, 실제 학생들의 진로설계/진학 현황과 일치하지는 않’는 다거나, ‘다수 타 센터들은 자원 부족으로 모든 관내 학교에 진로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지역사회 혹은 학교 연계 활동을 위해 별도의 정부/교육청 차원의 연계 시스템이 없음’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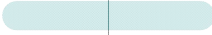
이 국면에서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도입한 ‘진로연계학기’의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 진로연계학기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학기 운영을 의미한다. 진로연계학기는 학교급 간 교과 내용 연계, 진로 설계, 생활 적응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교육부, 2021) 진로 설계뿐만 아니라 학교급 간 교과 내용 연계와 생활 적응 등 복합적인 발달을 추구해 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도울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에 더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주제

현행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는 일반 학기와의 단절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의 비효과성, 구체적 매뉴얼 부재로 인한 실무자 부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후술할 문헌 연구와 국내 인터뷰에서 확인하였다. 진로연계학기는 교과-진로 연계/생활 적응/진로 설계를 복합적으로 추구할 수 있고 진로 성숙도 및 진로효능감 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정부가 진로연계학기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의 실행 현황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부재를 실행의 걸림돌로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진로연계학기의 효과적/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도 실현 가능하고 적합한 교육 모델의 개발은 절실하다. 따라서, ‘**국내 중등교육 내 진로연계학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교육 모델 제안**’을 주제로 전환학기(혹은 전환학년) 제도를 이미 확립하여 운영 중인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의 진로교육 사례를 탐색하여 국내 중등교육 내 진로연계학기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국내 탐사와 해외 탐사로 나뉜다. 문헌 조사를 통하여 진로연계학기가 등장하기까지의 한국 진로 교육의 개요를 살핀 후, 학생, 교사, 지역사회 연계기관 담당자와 같은 진로연계학기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진로연계학기를 비롯한 현행 국내 진로 교육의 방향성과 그들의 니즈를 분석한다. 이후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해외 탐사를 통하여 해외 전환학년제의 운영 과정을 관찰하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다. 해외 탐사 후 국내외 인사이트를 종합하여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시행될 진로연계학기에 적용하기 알맞은 교육모델을 개발한다. 연구 일정 및 방법을 정리한 도식은 [그림 1]과 같다.

	4월	5월	6월	7월
국내 진로교육 및 진로연계학기 관련 문헌조사				
학생, 교사, 관내 진로센터 등 이해관계자 인터뷰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진로교육 및 전환학년 사례 탐사				
진로연계학기 교육모델 개발				

[그림 1] 연구 일정 및 방법

II. 본론

1. 진로연계학기 관련 선행연구 분석

가. 한국 진로교육의 개요

한국의 진로 교육은 1980년대 말부터 발전하여 교육부의 주도 하에 국가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왔다. 교육부는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2010~2013)과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 계획(2016~2020)을 거쳐, 2023년 4월, 제3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22년~2027년)을 발표하였다. 1, 2차 진로 교육 계획은 학교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밖 진로 체험처를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중학교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을 확대하여 학교 내 진로교육 운영 정착을 지원하였으며,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험처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인증제 및 수준별 프로그램을 정비함으로써 진로 체험처와 인증 기관 수를 확보하였다(교육부, 2023a).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교육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1, 2차 진로 교육 계획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윤옥한, 2024). 최근 교육 및 사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 변화 요인인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과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진로 교육 지원 역량 강화’ 등의 핵심 전략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 핵심 전략(교육부, 2023a)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
1.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1-1. 초등 진로교육의 강화 1-2. 진로 수업 · 상담 내실화 1-3. 진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2. 미래 역량을 기르는 진로교육 2-1. 신산업분야 진로교육 강화 2-2.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 2-3. 진로교육정보망 통합 및 고도화	3.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진로교육 3-1. 진로체험지원센터 기능 강화 3-2. 지역 연계 진로 · 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3.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 대응 전략 중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진로 교과 「진로와 직업」을 개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전 교과 수업 시 진로교육이 포함되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진로교육정보망 통합을 추진하여 디지털 및 AI 기반의 맞춤형 진로 교육 제공을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부, 진로체험지원센터, 학교, 지역 내 공공·민간 기관센터의 연계를 통해 [그림 2]와 같이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2] 진로교육 협력 체계를 통한 안정적 진로교육 지원 (교육부, 2023a)

나. 진로연계학기 도입 배경: 기존 진로교육의 한계점

2022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도입된 진로연계학기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학기 운영을 의미한다. 진로연계학기에서는 학교급 간 교과 내용 연계와 더불어 진로 설계, 학습 방법 습득, 생활 적응 등을 위해 학습과 진로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교육부, 202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진로연계학기의 운영 항목은 <표 2>와 같다.

<표 2> 진로연계학기 운영 항목

교과	기초학력 보장	교과 외 활동
학생의 역량 개발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의 내용으로 단원 구성	상급 학교급·학년군으로 전환 시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개별화된 학습 지원	교과 이수 경로와 연계하여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 탐색·설계 활동 운영

진로연계학기 대상 중 중학교 3학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된 배경에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2016년 모든 중학교에 도입되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탐색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오히려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이 큰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여 교육 격차를 심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박휴용 & 송진웅, 2018). 이는 자유학기제와 일반 학기의 운영 방식이 단절

되어 있어 자유학기 종료 후 학생의 학업 적응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에 전면도입될 예정이다. 학생이 스스로 수강 신청하여 과목을 선택함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진로 탐색설계 역량을 강화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으나, 중학교 수준의 진로 탐색 경험 및 고교학점제 선택 교과목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는 우려 또한 표출되고 있다. 종합하자면, 현행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 운영이 단절되는 것을 보완하고, 중학생의 고교 진학 전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점에서 진로연계학기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다. 진로연계학기 연구의 필요성

진로연계학기의 핵심 운영 항목에는 ‘교과연계 진로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이 있다. ‘교과연계 진로교육’이란 각 교과목의 성취기준에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연계 진로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 성취기준과 진로교육 성취기준을 융합한 교과연계 진로교육 성취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도구를 설계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등에서는 교과연계 진로교육 자료실을 운영하여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¹⁾.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학생의 진로 성숙²⁾과 진로 태도³⁾에 큰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심수정, 2020). 이는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이 진로 탐색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진로 능력⁴⁾을 향상시키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심수정, 2020). 교과연계 진로교육에 실제 진로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은 직접적으로 직업 체험할 수 있는 ‘현장직업체험’을 가장 선호한다(교육부, 2023b). 청소년의 체험활동은 단순한 경험의 연속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된 교육적 경험이며(김창제, 2020),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속적 진로체험을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벗어나 학교 밖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기반 진로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교육부 서비스 플랫폼 ‘꿈길’⁵⁾을 중점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진로 체험처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연계학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여전하다. 진로연계학과 비슷한 제도들이 이미 시도되었다가 사라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 전환기 프로그램(STP: School Transition Program)은 전환기 학생들(초6, 중3, 고3)이 경험하는 심리·사회·학업적 문제들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STP는 진로 교육에 적극적인 소수 교사에 의해 운영되고 교육부 주관 진로교육실천대회의 주요 콘텐츠로만 홍보되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사라졌다(한국교육개발원, 2022). 자유학기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학생의 학생 주도적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 효과

1) <https://www.career.go.kr/cnet/front/commbbs/courseMenuEdu/commBbsList.do>

2) 한 사람의 진로발달 정도를 나타내거나 진로에 대한 준비 상태, 태도, 능력 등을 일컫는 진로 관련 변인(심수정, 2020)

3) 진로 성숙의 하위 구성 요소로 진로 방향과 직업 선택에 대한 ‘결정성’,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는 ‘독립성’, 자신의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성’으로 구성(송인섭 외, 2008)

4) 진로 성숙의 하위 구성 요소로 직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인 ‘진로 세계 정보’, 직업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선호 정도인 ‘직업능력선호’, 진로를 결정할 때 필요한 구체적 자격조건인 ‘직업준비계획’으로 구성(송인섭 외, 2008)

5) <https://www.ggoomgil.go.kr/front/index.do>

성에 대한 여러 갑론을박이 일었고 자유학년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자유학기제로 회귀하는 등의 혼란을 겪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 함께 도입된 진로연계학기가 STP와 같은 아쉬움을 극복하고 자유학기제와 함께 시너지를 내어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가.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필요성

진로연계학기는 교과-진로 연계/생활 적응/진로 설계를 복합적으로 추구할 수 있고 진로 성숙도 및 진로효능감 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진로연계학기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모델의 부재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STP,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와 같은 수많은 진로 교육 및 정책이 남긴 아쉬움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진로연계학기의 성공적인 국내 안착을 위해서는 전환학기 제도를 이미 확립 및 운영 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 적합한 진로연계학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 학교 및 진로 체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 교육이 운영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진로연계학기 교육모델 제안에 있어 필수적이다.

나.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기대 효과

1) 덴마크

덴마크는 국가 차원에서 전환학년 활성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영 FGU(Forberedende grunduddannelse) 기관과 학교가 밀접히 연계된 체계적인 국가 운영 전환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주로 사립으로 운영되는 Efterskole도 존재한다. 덴마크의 전환학년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진로연계학기의 국가-지자체-학교 간 원만하고 체계적인 원동 방안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전환학년의 운영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 덴마크 탐사 기관

기관/단체명	기관 소개	탐사 일자
Efterskolen	- 덴마크 전환학년 사립학교 운영 총괄 NGO - Efterskole 입학 지원, 이사회 운영 등	24.06.20.
FGU Danmark	- FGU 교육의 개발 및 적용 지원 - FGU 기관의 이사회 및 이사/총장으로 구성된 공동 협회 - FGU 교육시스템의 일관성 보장	24.06.24.
FGU Hovedstaden - Vesterbro School	- PGU(공예, 음식 등 창의성), EGU(기업인턴십 실무교육), AGU(일반기초교육)의 3가지 FGU 코스를 복합적으로 운영.	
FGU Nordsjælland - Skibby School	- AGU, EGU, PGU의 3가지 과정 - FGU-IN(일반 청소년 교육)와 FGU+(지방자치 단체 협력 실무강좌, 워크숍 전환) 진행	24.06.25.

2)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다양한 주체들이 전환학년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전환학년 운영의 형태도 주체(대학, 지역사회기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TY(Transition Year)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학교 외부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전환교육의 운영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아일랜드 탐사 기관

기관/단체명	기관 소개	탐사 일자
Dublin City University (DCU)	- TY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 기술, AI, STEM 프로그램 관련 주제	24.06.27.
Foroige	-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 - 청소년 프로젝트, 멘토링,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등 진행	

3) 영국

영국은 덴마크, 아일랜드와 달리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 체제 외부에서 진행되는 ‘갭 이어(Gap Year)’가 존재한다. 또한 ‘개츠비 기준점’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목표가 학교 단위로 적용되어있다. 영국의 진로교육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학교 사이의 진로연계학기 운영 관련 연계 방안 탐색 및 거시적인 진로연계학기 목표 설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영국 탐사 기관

기관/단체(인터뷰이)명	기관(인터뷰이) 소개	탐사 일자
ICEGS - Nicki Moore	- 진로 및 진로 지도 분야의 국제 연구 센터 - ICEGS 근무 유럽 전역의 진로지도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	24.06.28.
Andrew Jones	- 2004년 ‘갭 이어 조항 검토(Review of Gap Year Provision)’ 보고서 발표 - 2015년 한국 자유학기제 도입 당시 갭 이어 관련 발표	24.07.01.
Manchester Job Festival	-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 - 고용 정보 수집, 대면 인터뷰 및 질문 가능	24.07.02.

3. 탐사 내용 정리

가. 국내 탐사 내용

현재 진로연계학기는 학교 현장에 조금씩 발을 내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 진로 교육 핵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진로연계학기 시행에 앞서 진로연계학기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핵심 이해관계자로 진로교육기관 관계자, 교사, 학생을 선정하였으며 각각 대면 인터뷰, 서면 인터뷰,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현행 진로 교육 및 진로연계학기에 대한 의견을 확보하였다.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며 국가 및 지역 진로교육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대표적인 진로교육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표 6>과 같다(정지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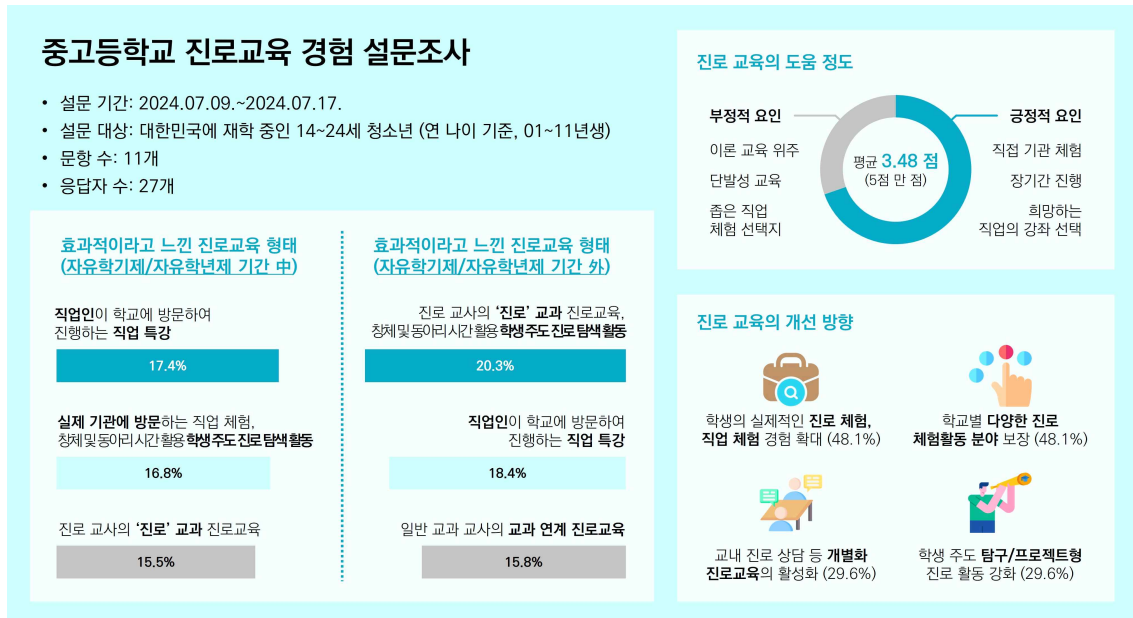
<표 6> 진로교육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구분	설치단위	역할 및 기능
국가진로 교육센터	국가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 － ①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②진로정보망 구축·운영, ③진로심리검사개발, ④진로상담 지원, ⑤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⑥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⑦진로전담교사 교육, ⑧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⑨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⑩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지역진로 교육센터	광역	지역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 －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①진로정보 제공, ②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③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④진로체험 운영·지원 등
진로체험 지원센터	기초	시·군·구 단위의 진로체험 운영 지원 기관 － ①지역사회내 체험처 발굴·관리, ②체험프로그램 컨설팅, ③체험처-학교 매칭, ④ 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 ⑤ 진로체험지원 자원봉사자 양성, 활용, 관리, ⑥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심사 등

자료: 정지은(2023)을 참고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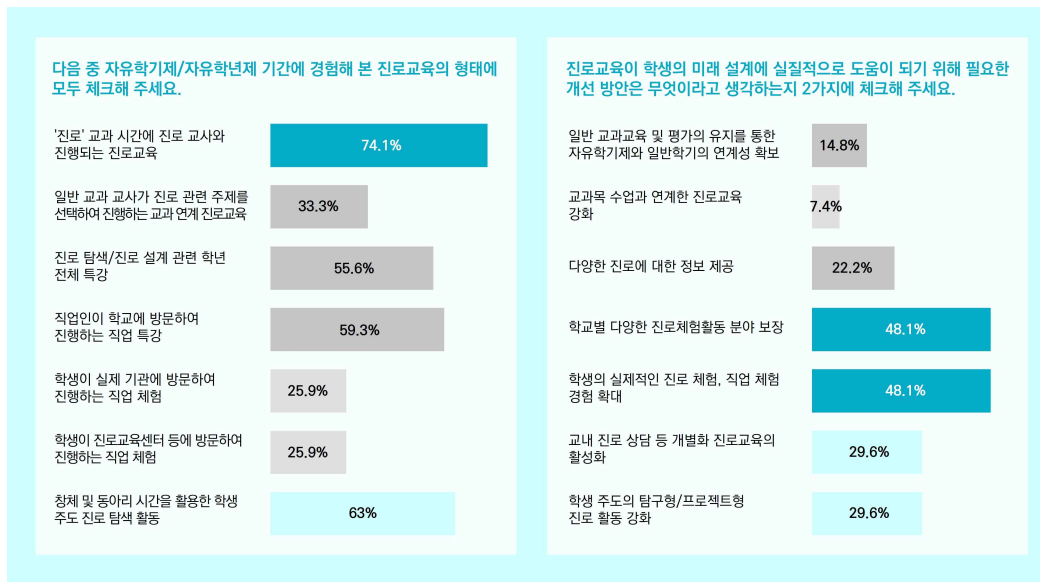
나. 국내 청소년 설문조사 내용

진로연계학기의 실질적 대상인 국내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 경험을 인식하여 진로연계학기 도입을 위한 교육 모델 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한민국에 재학 중인 14~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 27개를 수집하였다. 응답을 간략하게 정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국내 설문조사 응답 결과 정리

설문조사 결과 현행 진로 교육의 도움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48점으로 나타났다. 진로 교육이 이론 교육 위주로 진행될 경우에 학생들은 진로 교육이 실제 진로 탐색 및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였으며, 반대로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실제적인 도움을 느낀다고 서술하였다. 다만 실제 직업 기관 및 진로교육센터에서 직업체험을 하더라도 단발성 교육으로 진행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적을 경우 진로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중고등학교 진로교육 경험 설문조사 세부 응답

주목해야 할 것은 응답자가 경험한 진로 교육의 형태와 필요로 하는 진로 교육의 형태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기간에 경험해 본 진로교육 활동으로는 '진로' 교과 시간에 진로 교사와 진행되는 진로교육(74.1%), 창체 및 동아리 시간을 활용한 학생 주도 진로 탐색 활동(63%), 진로 탐색/진로 설계 관련 학년 전체 특강(59.3%)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현행 진로 교육이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짐과 교과 수업과 관련된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응답은 학생의 실제적인 진로 체험, 직업 체험 경험 확대(48.1%), 학교별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분야 보장(48.1%)와 같이 학교 외부에서 진행되는 진로 및 직업 체험 활동이며 이는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교육과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한편, [그림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기간 중과 기간 외에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진로교육의 형태가 다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필고사가 없어 비교적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은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기간에는 '실제 기관에 방문하는 직업 체험'과 같은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체험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응답되었으나,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기간 외에는 '진로교사의 '진로'교과 진로교육'이나 '일반 교과 교사의 교과 연계 진로교육'과 같이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교과 수업 활동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진로 탐색 활동에 대한 학생의 적극성과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진로연계학기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학교 밖의 실제 직업 현장 체험이나 진로교육 전문 기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 간 진로교육 방식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업 단계에 따라 학생의 니즈와 선호도를 반영하여 학교 안과 밖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알맞게 제공하는 진로연계학기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 국내 전문가 인터뷰 내용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자유학기제의 도입에 따라 진로 지원 센터의 필요성이 도래하며 등
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설립 초반에는 중등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초
등, 고등, 성인 등 전 생애에 걸친 진로체험을 제공한다. 본 팀은 서울시에 위치한 S 진로직
업체험지원센터의 서OO 진로센터 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연계 진로 프로그램 사
업에 대한 실무자 관점에서의 정보 및 요구사항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림 5] S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팀장 인터뷰

<표 7> 진로교육 지원기관 관계자 인터뷰 정보

인터뷰 장소	S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인터뷰 일시	2024년 3월 2일 오전 10시
인터뷰이	서OO 진로센터 팀장

1) 기관 및 사업 소개

S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S 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S 센터가 관할하는 사업은 크게 ‘진로중점사업’, ‘학교연계사업’, ‘개인진로체험’, ‘지역연계사업’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S 센터의 주력 프로그램으로는 진로 박람회(진로중점사업), 직업실무체험(학교연계사업)을 들 수 있다. 진로박람회는 관할구 학교 한 학년 전체와 협약을 맺어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S 센터의 진로박람회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약 100개의 직업인 일터 부스를 제공하는 최대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직업실무체험은 현장 직업 체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S 센터 내부에 갖춰진 모의 일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S 센터의 사업은 진로 관련 국가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라 학과 계열 검사와 커리어맵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과목 진로 융합 심화 프로젝트(PBL)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S 센터는 진로연계학기의 도입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환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예비 중1과 예비 고1의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캠프를 추진하여 심화된 체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캠프에서는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직 교사의

특강을 제공하는 등 전환기를 앞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2) 사업 추진 프로세스

S 센터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 모집과 참여 학생 모집은 모두 센터 직원의 직접적 섭외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는 직업인 및 대학생 모두 센터에서 섭외를 하며 제안서 또한 모두 직접 제작한다. 교육청 등의 차원에서 강사 섭외를 위해 제공되는 가이드나 사이트같은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학생 희망 직업 순위 통계와 같은 자료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계자를 섭외한다.

참여 학생 모집 또한 센터 자체적으로 진행되지만, S 센터의 관할구 특성 상 사립 학교가 많이 위치해 있어, 오랜 기간 S 센터와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교사들로부터 직접 진로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시기에 먼저 연락을 받는 편이다. 교사와 센터의 구두 협의가 완료되면 센터는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초반에 홍보물을 각 학교에 발송해주나, 자세하거나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진 않는다.

3) 진로교육 사업 실행자의 입장에서 PMI

Plus (좋았던 점)	S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록,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록 참여 학생의 만족도 및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 방법, 학자금 대출 받는 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학생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예비 고1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1박 2일 진로 캠프는 변경된 대입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여 학생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Minus (개선이 필요한 점)	S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된다. 학생의 요구 조사를 분석 결과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니즈가 많기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수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의 진학 통계는 학생의 니즈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현행 진로 프로그램이 단순 흥미 위주로 운영되며,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진로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Interesting (기타 의견)	인터뷰이는 'S 센터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중에서도 매우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하였다. S 센터의 직원은 모두 정규직이며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보다 계약직 비중이 높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업무 과중을 겪는 센터가 다수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

라. 국내 전문가 인터뷰 내용 - 교사

실제 진로연계학기가 운영될 교육 현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중학교 진로 교사(2인), 중학교 일반 교과 교사(1인), 고등학교 진로교사(1인)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① 진로연계학기 준비 현황

진로 연계 학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고등학교 진로교사] - 진로 진학부 차원에서 7-8년 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진로 디자인학기제(자신의 진로를 고등학교 입학 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운영 - 매년 1학년 공통과목 선생님들께 1학기 동안 진로교육의 단원별로 어떤 부분을 넣어 수업할 것인지 지도안 형태로 수합하므로, 일반 교과 교원들도 진로연계학기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것 [중학교 진로 교사] - 정책이 실현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음 [중학교 일반 교과 교사] - 대부분의 교사들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부족하며 학교마다 관심도의 차이가 존재
진로연계학기의 도입과 관련하여 교육청 혹은 학교 차원의 시행 지침 논의 여부	[고등학교 진로 교사] - 중학교 과정이라 고등학교 진로부로는 전달되지 않은 듯함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 없음) [중학교 진로 교사] - 교육청 차원 구체적인 교육과정 지침 들은 적 없음 - 3학년 2학기 때, 다양한 주제로 고등학교 진학 전 학습과 진로 등의 주제로 학기를 구성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음 [중학교 일반 교과 교사] - 교육청 차원에서도 진로 연계 학기에 대한 확산 노력이 미흡하며, 자유학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음 -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원은 부족하며, 교과 내용과 연계한 진로교육은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진로연계학기의 시행이 학교 현장에 미칠 긍정·부정적 영향	[고등학교 진로 교사]
	-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선택부터 자료나 정보를 정확히 얻을 것으로 기대 -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일부 안내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진로연계학기가 운영된다면, 고등학교의 과목에 대한 이해, 진로 계열별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해 안내될 것으로 예상 - 고등학교 입학 시, 진로에 맞는 과목선택이나 진로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중학교 진로 교사] - 교사들의 업무 과중 및 각 교과별 시수 축소로 인한 교과별 갈등 예상 -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에 따라, 진로연계에 대한 범주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현실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 [중학교 일반 교과 교사] - 외부 업체 활용 증가로 비용 부담 및 교사들의 지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예산, 정보 부족이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하며, 외부 자원과의 연결이 가장 어려움 - 본교에서 개발한 진로연계학기 프로그램 운영 모델은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시간 부족, 평가 문제, 교과 융합 등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예시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며, 교사들의 노력이 많이 요구됨

체계적이지 못한 진로교육 시스템과 교원 개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진로연계학기의 우려점으로 꼽혔다. 더불어, 실무자 등 직업인이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 실제 직업 체험을 받아주는 기관이 어렵다는 점은 진로연계학기의 안정화가 단순히 교원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외 진로교육센터, 진로 체험지원센터 등 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피로도 원인이 교과와 진로를 연계하는 학습 지도안 구성에 있다는 점도 유의할 만한데,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아직 학생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고려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 일반 교과 수업으로 이어질 경향성이 있으므로 세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진로연계학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이해관계자인 학생의 니즈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며 교원들의 피로도를 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학교 외 차원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진로교육 운영 현황

진로교육의 차시 수	[고등학교 진로 교사] - 진로와 직업 교양선택 과목이 일주일에 1시간 - 2025년부터 학점제로 운영됨에 따라, '진로와 직업'이 2학점 과목으로 변경되며 집중 이수제 1학기 2학점 (주에 2시수) 교과가 한 학기로 끝남 - 현재 2학점이지만,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결정하는 교시 외 과목으로 설정하여, 진로탐색1,2와 같이 다르게 설정하여, 1년동안 진로교육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존재 [중학교 진로 교사] -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한 주당 2차시. 3학년의 경우 한 주당 1차시로 진행 중 - 자유학기 내, 진로 탐색 17시간 진행 [중학교 일반 교과 교사] - 창체 시간 34차시와 진로 교과 시간 17시간으로 운영되며, 진로 관련 검사, 강연, 직업 박람회, 진로 탐색 활동 등이 포함됨 - 놀이공원 견학 등과 같은 체험활동도 포함되며, 진로 체험시간은 2학기에 줄어듦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진 로교육이 진 행되는 여부, 관련 지침 존재 여부	[고등학교 진로 교사] - 각 교과에서 시기와 단원을 정해 지도안에 포함시킴. 이때 교과 교사가 진로 연계교육 지도안 약안을 작성하면, 진로 교사가 이를 수합하여 교육청으로 전달 - 진로 진학부에서 각 교과별로 진로를 연계시킴 (법 관련 내용을 배울 경우, 법 관련 진로를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중학교 진로 교사] - 공식적인 지침이나 교육과정 부재 - 각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구성 및 지원하는 교사 동아리 중 진로 연계 교과 교육을 연구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과 연구회 등 존재
교과 내용 연계 진로교 육 진행 방 식 (과정 및 결과)	[중학교 진로 교사] - 교과 내용을 진로 교육에 연계해 수업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상이함 (교과와 진로를 연계하는 수업 디자인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힘든 작업) -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에 맞춰 수업에 참여하므로 희망 학과에 관련된 탐색을 하는 방향으로 결과물 생성 - 학생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경우, 교과연계 진로수업이 부담 - 중학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삶과 희망직업 등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수준

교과 연계 진로 교육 진행 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학교 진로 교사] - 학생들의 진로 성향, 희망을 섬세히 반영하기 어려움 - 교과와 진로를 연계하는 학습지도안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작업이라, 교사들의 피로도가 심함 - 섬세하게 수업을 디자인하지 않을 경우, 결국 교과 혹은 진로 한 분야에 게만 집중하게 됨	
일반 진로교육에 비해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이 갖는 차별적 장·단점	[중학교 진로 교사] - 아직 목격한 적은 없으나, 훌륭한 수업설계가 있다면, 콘텐츠와 커리어를 합쳐 학생들의 학습이나 진로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학생이나 교사가 많은 노동력을 투자하는 작업이라 힘들	
현장 실무자 특강이나 학생들의 직무 실습으로 진행되는 진로 교육 여부	진행할 경우, 비실습 진로 교육 대비 학생들의 만족도, 참여도, 교육의 효과성 정도	[고등학교 진로 교사] - 실제로 학교 수준에서 현장체험을 갈 만한 곳이 없음 - 코로나 이전, 대학 탐방이나 학부모 및 동문을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진행 [중학교 진로 교사] - 직업인 특강, 현장 체험학습, 직업체험 등 실습을 통한 진로수업은 집중력이나 영향력이 큼 - 전반적으로 실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진짜 직업 이야기를 들을 경우,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음 - 학교로 프로그램 신청 안내 공문이 오면,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되는 곳 위주로 선정 (진로 탐색 예산이 적어, 예산의 대부분을 교통비로 지출) - 개별 기관에 전화 예약 후, 참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답사를 통해 장소 확인을 진행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진행할 의향과 이유	[고등학교 진로 교사] - 전반적으로 실제 실습을 나가는 경우는 없고, 실무자분들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진행됨 [중학교 진로 교사] - 기회가 된다면, 각종 단체, 기업, 전문가, 학자들과 연계하여 실무자 수업을 진행하고자 함 -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제 직업 체험을 허락해주는 기관은 잘 없으며, 코로나 이후 봉사활동을 받아주는 기관조차 찾기 힘들

평소 진로교육 시간에 학생들의 태도	[고등학교 진로 교사] - 시중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와있는 단원들에 대한 워크시트를 활용해 수업 진행 - 단원별로 교과서에 준한 학생 활동과 보고서 작성 - 창의적 체험 활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로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 대부분 학교에서 시수별로 안배하며 시수가 적은 교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창의적 체험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신문 스크랩 등을 요약하여 정보를 찾고 보고서를 쓰는 활동, 진로 활동에 대한 워크북을 만들어 매 시간 작성하고 연말에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존재 - 본교에서는 화요일 7교시를 창체진로활동으로 운영하여, 1학기에는 팀별 활동, 2학기에는 개별 활동을 진행함. <table border="1" data-bbox="424 831 1342 1104"> <tr> <th>학년</th><th>팀별 활동</th></tr> <tr> <td>1</td><td>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새로운 미래직업 아이디어 주제 하에, 관심 분야별로 변화하는 직업구조 등을 탐구하여 팀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td></tr> <tr> <td>2</td><td>세계 지역, 국제 지역을 탐색한 후, 각 분야를 기반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국제 지역의 내용을 탐색</td></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424 1160 1342 1368"> <tr> <th>개별 활동</th><td>진로독서활동을 통해, 진로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관심 책을 선정해 읽고 진로와 연계되는 중요한 내용을 작성 및 발표</td></tr> <tr> <td>3학년</td><td>전공할 분야에 따라, 질문기반 전공 탐색 활동을 진행 -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 충분히 알고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보고서를 작성함</td></tr> </table> [중학교 진로 교사] - 진로 독서, 진로 관련 영상, 특강 초청, 진로 체험, 외부 체험 등	학년	팀별 활동	1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새로운 미래직업 아이디어 주제 하에, 관심 분야별로 변화하는 직업구조 등을 탐구하여 팀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2	세계 지역, 국제 지역을 탐색한 후, 각 분야를 기반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국제 지역의 내용을 탐색	개별 활동	진로독서활동을 통해, 진로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관심 책을 선정해 읽고 진로와 연계되는 중요한 내용을 작성 및 발표	3학년	전공할 분야에 따라, 질문기반 전공 탐색 활동을 진행 -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 충분히 알고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보고서를 작성함
학년	팀별 활동										
1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새로운 미래직업 아이디어 주제 하에, 관심 분야별로 변화하는 직업구조 등을 탐구하여 팀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2	세계 지역, 국제 지역을 탐색한 후, 각 분야를 기반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국제 지역의 내용을 탐색										
개별 활동	진로독서활동을 통해, 진로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관심 책을 선정해 읽고 진로와 연계되는 중요한 내용을 작성 및 발표										
3학년	전공할 분야에 따라, 질문기반 전공 탐색 활동을 진행 -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 충분히 알고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보고서를 작성함										
진로교과 운영에 있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	[고등학교 진로 교사] - 진로 진학 상담교사 카페, 밴드 등 SNS를 통해 전달되는 최신 정보 존재 - 새로운 직업이나 진로 탐색 과정에 대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찾아봄 - 진학의 경우, 전형 정보나 대학별 입시 결과를 활용 - 학생들이 직업목표를 어떤 경로로 찾아가야 할 지 모르는 경우, 공식적인 사이트를 통해 찾아가는 경로를 안내해 줌 [중학교 진로 교사] - 커리어넷, 각 교육청에서 제작해 만든 진로 관련 활동지, 인터넷 진로 영상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과 밀접히 연계된 진로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	[고등학교 진로 교사] - 고등 교육재단에서 진행하는 강의들과 본교의 특성이 맞아, 그 분들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나 만족도가 높아 학교 특성에 따른 전문가 그룹들의 프로그램이 많으면 유익할 것으로 예상 - 접하기 힘든 어려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하면 좋을 듯함 (주제에 따라 반 별로 찾아오는 캠프 형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 체험 활동의 경우, 과거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추세
	[중학교 진로 교사] - 배정된 진로교육의 시수가 적어 집중도 높은 진로교육을 실현하기에 비효율적임 - 2022 개정 교육과정 진로연계 학기처럼 특정 학기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거나 학기가 끝나기 전, 1주 정도 세밀하게 계획하여 몰입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임. 그러나, 이 방법도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소비되고, 교사들 간 면밀하고 밀접한 협업이 필요한 작업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고교학점제 도입 후, '진로' 교과 운영 혹은 진로 교육에 대한 계획	[고등학교 교사] - 현재도 진로에 따른 과목선택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음 - 입시와 연결되어 있어, 진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의문점이 존재 (현행 9등급제가 5등급제로 편성되면, 대부분 전문 교과들이 5등급제로 성적을 부여할 것이므로 등급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겠지만, 2등급을 받는 순간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가기 어려울 수 있음)
	[중학교 진로 교사] -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진로와 직업 교과시간의 내용 구성이 달라지거나, 고등학교 전담교사의 역할이 달라질 것

교육부가 발표한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 핵심 전략'에서 교과 수업 내 진로교육이 포함되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 것에 반해, 중학교 교사들의 인터뷰에는 세부 사항에 관한 인지도가 부족하며, 학교별로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계 이외의 진로 교육에 한해서도 '안정적인 진로교육'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구체적인 진로 교육 과정에 대해 들은 바가 없거나(고등학교 교사), 자유학기에 더 신경을 쓰는 학교(중학교 교사), 연계 활동으로 인한 교사의 노력 증가 등 진로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교원의 피로도 증가는 '학교급 전환기 프로그램'의 안착 실패 원인 중 하나인 '적극적인 소수의 교사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현행의 진로 연계 학기 도입 안착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기존의 자유학기제, 진로연계학기의 도입이 맞물려 현장에서의 진로 교육에 대한 혼란을 보여주는 점이라 사료된다.

또한, 진로 체험 시간이 줄었다(중학교 교사)는 내용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고등학교 교사)의 진행 내용으로 보았을 때, 교과서 밖의 실무 체험이 진로 교육 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인터뷰 내 언급된 학년별 창의적 체험 활동과 진로 교과 운영 과정에서 교사가 수집하는 자료의 양과 질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진로 연계 학습의 성격 중 학생의 역량 개발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한다는 '교과'의 목표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학교 내, 혹은 교육청 단위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진로/교과 교사의 현직 상황을 고려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 해외 탐사 및 인터뷰 내용

1) 덴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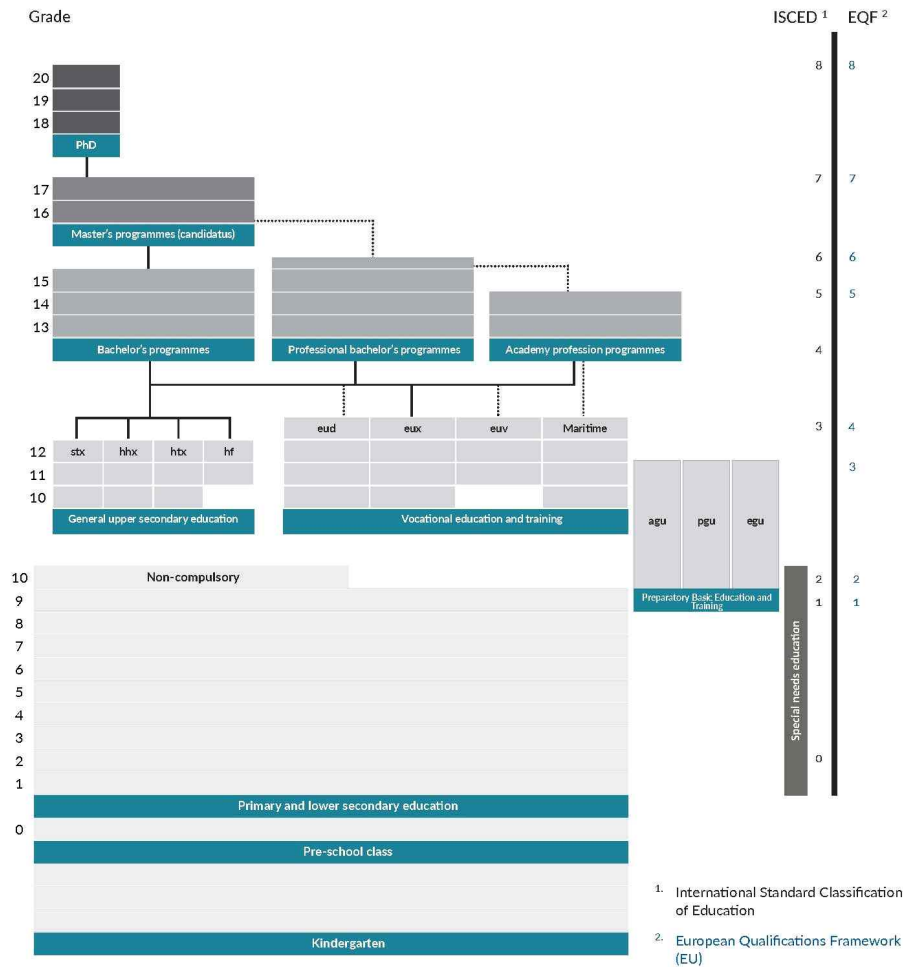
① 덴마크 기본 학제

덴마크에서는 1~6학년의 의무적 초등교육과정과, 7~9학년의 하위 중등교육과정, 11~13(혹은 10~13)학년의 상위 중등교육과정으로 전체 학제가 구성된다.

덴마크의 하위중등교육, 1~9학년 학생은 공립기초학교인 Folkeschole에서 학습을 수행하며, 이는 의무 교육에 해당한다. Folkeschole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합교가 결합된 형태의 학교이고, Folkeschole의 교육은 지방의회가 관할 하에 있다. 다만, 실제적으로 학교 단위를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위원회이다. 학교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정한 틀에 따라 학년별 수업 일수, 교육 과정, 특별 교육, 교사 업무 분장 등의 세부적인 업무 사항을 결정한다. 9학년의 의무 교육 과정 수료 후 맞게 되는 10학년부터는 의무 교육 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10학년 과정은 상급학교 진학 전 연결 과정(bridge-building course)으로 불리는데, 학생이 진로와 전공을 결정하기 전에 기숙사에서 학우와 함께 생활하며 사회성을 키우고, 필요한 선택과목을 추가적으로 배우는 시기이다.

상위 중등교육과정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중등학교와 취업을 목표로 하는 2~3년제의 직업학교로 구분된다. 일반 중등학교는 전공 영역에 따라 stx(김나지움), hhx, htx, hf의 4가지로 학교 유형이 나뉘어진다. stx와 hf는 인문학,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광범위한 교과분야를 배우고, hhx는 상경계, 사회·경제 분야, 외국어, 일반 전공 분야로 이루어지며, htx는 기술 및 과학 분야로 이루어진다. stx, hhx, htx는 3년 과정, hf는 2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직업학교에서 다루는 교육 분야는 크게 7가지로 구분된다. 건축, 수공업, 식품과 농업, 운송과 수송, 사업과 사무, 재정,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7가지의 대분류 하에서 하위 분야 95개와 200가지의 세분화된 전문 분야가 있다. 교육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다양한데, 이는 직업별로 업계에서 요구하는 실습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덴마크의 학제 전반을 체계화한 도식은 [그림 6]⁶⁾과 같다.



1.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2.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EU)

[그림 6] 덴마크의 학제 개요

6) Overview of the Danish Education System,
<https://eng.uvm.dk/general-overview-the-danish-education-system/overview-of-the-danish-education-system>

② 덴마크 진로교육

덴마크의 전환교육은 크게 FGU와 Efterskole로 나뉜다. FGU는 공식 교육과정상 등록되어 있는 대안교육과정으로, 예비기초교육(Forberedende grunduddannelse)으로 해석된다. FGU는 ‘NEET(No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Efterskole는 Efterskolern이라는 NGO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형 전환교육기관으로, 덴마크의 고유한 형태의 기숙학교이다. 전환학년을 갖기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Efterskole를 다닐 수 있다.

FGU의 목적은 6~9학년의 하위 중등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기존 교육과정과 다른 방식의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데 있다. Efterskole의 목적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인간관계 등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③ 덴마크 탐사 목적

FGU와 Efterskole를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를 탐사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FGU는 국내 진로연계학기제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다. 공립기초학교의 9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이 진로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중학교 3학년 과정 내에서 전환학기를 제공하는 국내의 진로연계학과와 달리, FGU는 만 25세 미만이고 개인적 혹은 사회적 등 다양한 이유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거나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agu, pgu, egu로 교육과정이 세분화 및 체계화 되어있으며, 교육과정에는 교과 학습, 인턴십,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FGU 운영 사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국내 진로연계학기에 차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해 넓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덴마크 고유의 기숙 학교인 Efterskole는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1년 혹은 2년에 걸쳐 중학교 마지막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팀이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장기적인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진로 탐색 및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 센터 관계자 또한 장기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의 진로연계학기는 한 학기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1~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공동 생활을 하며 학업에 대한 부담을 내려두고 학생의 적성과 재능을 찾는 Efterskole의 사례를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fterskole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기간의 전환기 진로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국내 진로연계학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고자 한다.

④ 덴마크 탐사 기관

덴마크 탐사 목적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표 8>과 같다.

<표 8> 덴마크 탐사 기관

덴마크 탐사 기관 1. Efterskolerne	
인터뷰 장소	비대면 Zoom
인터뷰 일시	2024년 6월 20일 오후 1시(현지 시각)
인터뷰이	Jakob Clausager Jensen
덴마크 탐사 기관 2. FGU Danmark & FGU Hovedstaden - Vesterbro School	
인터뷰 장소	FGU Hovedstaden - Vesterbro School
인터뷰 일시	2024년 6월 24일 오후 12시
인터뷰이	Vicki Facius
덴마크 탐사 기관 3. FGU Nordsjælland - Skibby School	
인터뷰 장소	FGU Nordsjælland - Skibby School
인터뷰 일시	2024년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인터뷰이	Ole Lindved Sværke

• Efterskolerne - Jakob Clausager Jensen 인터뷰

Efterskolerne는 덴마크의 사립 전환교육기관인 Efterskole을 총괄 관리하는 NGO이다. 덴마크 학생들은 10학년에 Efterskole에 진학하여 사회 참여,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생활 운영, 진로 탐색과 창의적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Efterskolerne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뉴스레터와 잡지를 발행하여 Efterskole의 효과와 운영에 홍보하고, 학생들이 인근의 적합한 Efterskole로 진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Efterskole의 교육현황과 효과에 대한 분석 연구를 진행한다.

• FGU Danmark & FGU Hovedstaden- Vesterbro School - Vicki Facius 인터뷰

FGU Danmark는 개별 FGU 학교와 기관들을 총괄하는 NGO이다. 덴마크 학생 중 FGU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FGU에서 기초교육 보완, 직업훈련, 인턴십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다. FGU Danmark는 FGU 이사진 간 논의를 통해 FGU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을 탐색하고, FGU의 효과와 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FGU에 대한 팜플렛과 영상 자료 등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FGU를 알리고, FGU의 원칙과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한다.

FGU Hovedstaden- Vesterbro School은 FGU Danmark에 소속되어 있는 FGU 학교이다. 코펜하겐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는 기초교육인 agu와 직업훈련인 pgu, 인턴십 egu가 균형 있게 제공되며 특히 창의적 역량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 FGU 학교의 보편적 경향성과 달리 공연예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및 재활용과 같은 예술 분야의

직업훈련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7] FGU Danmark &
FGU Hovedstaden- Vesterbro School 탐사 단체 사진

- FGU Nordsjælland - Skibby School - Ole Lindved Sværke 인터뷰
FGU Nordsjælland - Skibby School 역시 FGU Danmark에 소속되어 있는 FGU 학교이다. 코펜하겐 근교의 Skibby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 도심지 FGU 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목재와 건축, 미디어 그래픽 디자인, 주방(조리, 베이킹), 미용 관련 pgu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림 8] FGU Nordsjælland - Skibby School 탐사 단체 사진

⑤ 덴마크 기관 탐사 내용

Efterskolern, FGU Danmark, FGU Hovedstaden - Vesterbro School, 그리고 FGU Nordsjælland - Skibby School 탐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전환교육 기관별 참여 현황

2023년 FGU 기관에 등록된 학생 수는 약 10,000명이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0세 미만이며 남학생 비율이 57%로 여성보다 약간 많다. 'NEE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취지에 따라 중등학교 졸업 학력이 없거나(17%), 범죄 기소 이력이 있거나(10%),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 있는(33%) 학생들의 비중이 보통학교에 비해 높다는 것이 FGU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다.

Efterskole의 경우 2024년 32,368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학생들의 대다수인 76%가 10학년에 Efterskole에 재학한다. Efterskole의 경우 전체 학생이 진학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학교와 난독증 학생을 위한 학교(20곳), 특수학교(21곳)가 구분되어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전환교육 기관별 교육과정

FGU의 교육과정은 크게 agu, pgu, egu로 구분된다. Agu는 기본적인 교과목 위주로 운영되며, 덴마크어, 수학, 정체성과 시민의식(Identity and Citizenship), PASE(노동시장교육)와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 1가지로 구성된다. Pgu는 직업훈련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주 2~3일 자신이 선택한 직종에 관한 훈련을 받고 나머지 기간 동안 덴마크어, 수학과 PASE를 배운다. Egu는 기업 인턴십 기반 교육과정으로 pgu와 기초교과는 동일하게 학습하지만 직업훈련 대신 직접 기업 및 기관 현장에서 인턴십을 실시한다. 이때 인턴십에 대한 급여가 제공되며 인턴십 기관은 지자체의 등록에 따라 학교의 counselor가 학생과 상의하여 배정한다.

Efterskole 교육과정은 학교에 따라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각 학교는 그 정치적, 종교적, 교육적 성향에 따라 과목과 교수법, 교육적 접근 방식을 자유롭게 운영하므로 창의성/예술교육 특화, 체육교육 특화 등 Efterskole별로 뚜렷한 특징이 드러나기도 한다. 단 덴마크어, 과학(화학,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수학, 영어, 독일어, 사회(역사학, 사회과학, 종교학), 체육, 교육 및 직업 탐색(Educational and Vocational Career Guidance) 과목은 모든 Efterskole에서 필수이다. Efterskole에서는 교과목 학습 외에도 스포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특별 활동'이 강조된다.

- 전환교육 기관별 운영 구조

FGU의 경우, 공식적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운영되는 대안교육과정으로서 일정 부분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나 중앙 운영 기관은 'FGU Danmark'이라는 비정부 기구(NGO)이다. FGU Danmark는 FGU를 운영하는 이사회로서 정치기구와 협력하여 FGU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FGU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역의 FGU Institution을 총괄한다. FGU institution은 지역별 FGU school의 집합을 이르는 용어로서 명확한 관리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FGU institution별로 headmaster가 존재한다. 각 FGU school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Efterskole은 정부와 연계되지 않은 자율형 전환교육기관으로서 Efterskolern이라는 비

정부 기구(NGO)에 의해 전체 Efterskole들이 운영된다. 때문에 Efterskole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FGU보다 높은 등록금(기숙사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⑥ 덴마크 진로교육의 장점

-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직업훈련 제공

덴마크 전환교육의 주요한 장점은 교육과정에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FGU 교육과정 중 자신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Pgu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주 2~3일의 고정된, 상당 분량의 시수 동안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Efterskole에서도 기본 교과목과 스포츠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FGU에서 직업훈련이 실제 해당 직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 직업훈련 내용과 기본 교과목(덴마크어, 수학 등) 내용이 연계된다는 점은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배가한다.

- 학생의 전인적 성장 추구

덴마크 전환교육기관은 공통적으로 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 독립적 생활능력 함양, 사회적 관계 기술 습득 등 전인적 성장을 함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미래 삶을 설계하는 진로교육의 목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적절한 교육방침이다. 학생들은 FGU 교육과 Efterskole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 참여 동기 향상, 자존감 향상, 자기 절제력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사후 설문조사에서 응답하였다.

⑦ 덴마크 전환교육의 한계점

- 불안정한 지역사회 연계 운영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의 운영이 학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FGU와 Efterskole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계점이다. FGU에서는 인턴십 기반의 egu 교육과정에서 정부 연계 인턴십 기관이 학교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연결 지점이 있지만, 그 외 교육과정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학교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직업종사자가 pgu 교사로 임용되어 있는 것 외 특별한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 한편,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지자체가 의뢰한 구조물 제작을 학생들이 진행하거나, 1달에 한번 학교 개방 행사를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학생들이 직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활발한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Efterskole의 경우에도 특정한 연계 프로그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하고, 대표적인 연계 예시도 학생들이 지역 풋볼 클럽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 등에 그쳤다. 따라서 실제적인 진로교육 제공을 위해 지자체 등 상위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역사회 연계 방안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 교사 업무 부담 가중의 위험성

전인교육과 진로교육 모두 교사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인 만큼, 교사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 부담이 가중될 위험성이 있었다. FGU의 경우 정부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부터 교과교육이 학생들이 선택한 pgu의 직업훈련 코스와 연계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서, 개별 교사가 학생들의 직업훈련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교과 전문지식을 융합하여 활용교육을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이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교사교육 프로세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고, 개별 학교 내에서 교사들 간 협의와 지식 공유를 통해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고차원적인 교육 제공에서 교사의 부담이 커질 경우 현장에서 교사가 지침에 따른 교육운영을 포기하고, 단순히 교과교육 혹은 진로교육만을 별개로 제공하는 식으로 교육과정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fterskole에서도 학생의 전인교육을 위해 교사가 교과적 지식 외 생활지도에서도 다수 개입해야 하고, 기숙 학교로 운영되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학생들과 활발하게 상호 작용하며 학생 개개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교사의 반복된 자기노출로 발생하는 피로감을 완화하고 문제행동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 필요할 것이다.

- 학교에 따른 교육의 질적 편차

FGU와 Efterskole에서 공통적으로 학교에 따른 교육의 질적 편차가 우려된다. 둘 모두 필수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고, 이 교과목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으나 직업훈련의 경우 교과목만 지정되어 있거나(FGU) 그마저도 없는(Efterskole) 실정이었다. 이는 직업훈련 및 진로교육 측면에서 학교 간 질적 편차를 야기했다. 학생 1인당 가용 자원이 부족한 경우 직업훈련 교과목도 적게 개설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교사의 교육태도 측면에서도,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을 때, 즉 전체 학교의 학생 수가 적을 때 교사가 더 적극적으로 교사공동체에 참여하여 교과연계 진로교육 내용을 탐색하고 정기적으로 학생의 진로설계에 관해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태도를 보였다.

2) 아일랜드

① 아일랜드 기본 학제

아일랜드의 주요 학제는 크게 Prim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Third Level Educ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일랜드의 First Level Education은 한국의 초등 교육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만 6세부터 의무화되고 있다. First Level Education은 8년 동안 진행되며, Junior Infant부터 6학년까지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주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개인이 소유하는 전일제 학교로, 4~12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들은 학습자 중심의(child-centered)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각 학교들에 시간표와 교수방법에 대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 First Level Education의 목표는 아동이 전인적 발달을 이루고,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협력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준비하는 것이다. 1999년에 개정된 초등 교육과정은 아동의 영적, 도덕적, 인지적, 정서적, 상상적, 미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커리큘럼은 언어, 수학, 사회 환경 및 과학 교육, 예술 교육, 신체 교육, 사회적, 개인적, 건강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ond Level Education은 한국의 중등 교육에 해당하며, Post-Primary Education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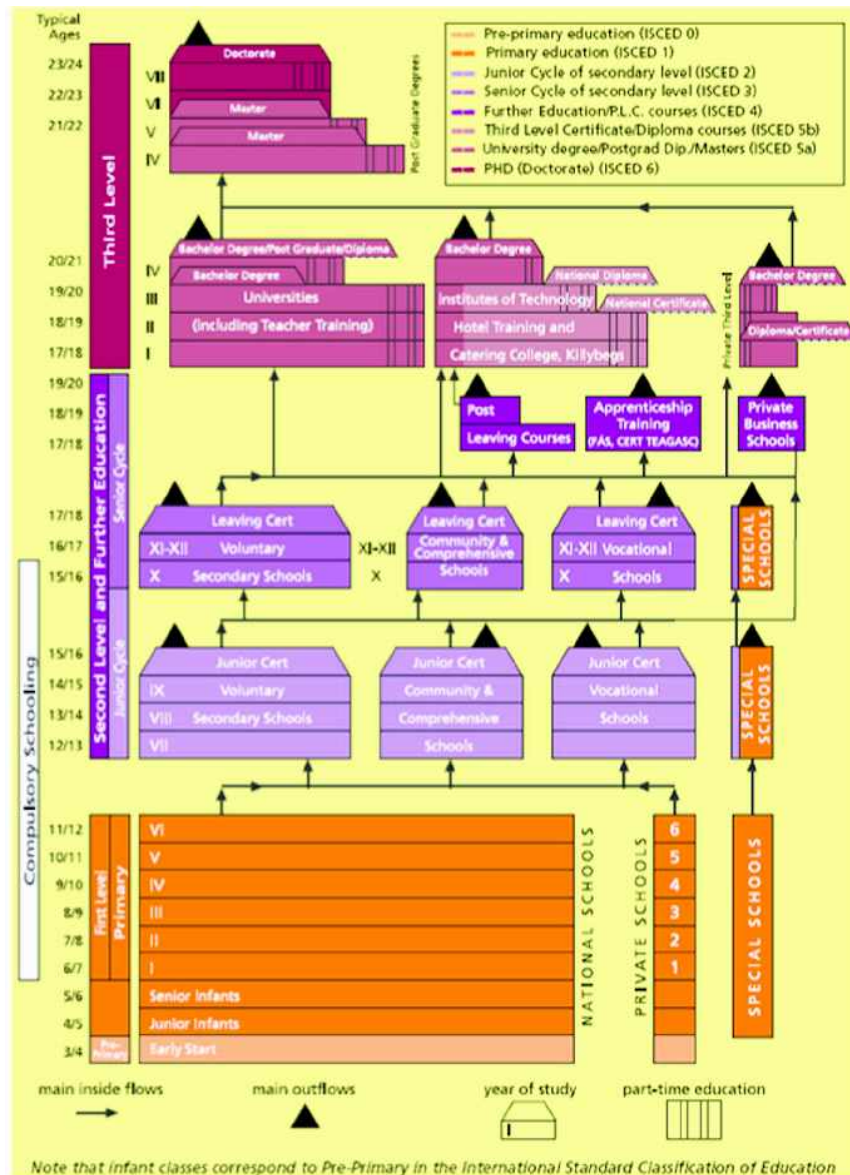
도 불린다. Second Level Education은 크게 Junior Cycle과 Senior Cycle로 구성되는데, 이 중 Junior Cycle은 한국의 중학교, Senior Cycle은 고등학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Junior Cycle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폭넓고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Senior Cycle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Junior Cycle은 일반적으로 만 12세에 시작되며, 만 15세 또는 16세에 Senior Cycle로의 진학을 위한 Junior Certificate examination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Senior Cycle은 만 15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은 Transition Year 참여 여부에 따라 2년 혹은 3년 동안 Senior Cycle에 재학하게 된다. Transition Year은 ‘전환학년제’라는 명칭으로 한국에 알려져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과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공식적인 시험이 없는 자유로운 학습 기간으로, Transition Year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적 차원의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인식 및 기술을 학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Senior Cycle의 마지막 2년 동안 학생들은 국가 시험으로 이어지는 3가지 프로그램 - the traditional Leaving Certificate, the Leaving Certificate Vocational Programme (LCVP) or the Leaving Certificate Applied (LCA) -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 먼저 Traditional Leaving Certificate는 고등교육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다. 이는 대학 입학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며, 국가 시험에서는 Irish를 포함하여 6~8개의 일반 교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것이 요구된다.

Leaving Certificate Vocational Programme (LCVP)은 일부 영역으로의 진학 또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과정으로, 국가 시험에서는 2개의 직업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5개의 교과목을 응시하고, 3개의 Link Module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이때 Link Module이란 프로그램의 직업적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기업 교육, 직업에 대한 준비 및 직업 경험으로 구성된 3가지 모듈을 가리킨다. Leaving Certificate Applied Programme (LCA)는 교과목 기반의 구조보다 간학문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실용적, 직업적인 기술을 강조하는 과정으로, 본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추가 과정 이수 없이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hird Level Education은 한국의 고등 교육에 해당한다. 아일랜드의 고등 교육은 학부, 대학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인문학,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과별로 졸업 연한이 상이하다.

아일랜드의 학제 전반을 체계화한 도식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아일랜드 학제

② 아일랜드 진로교육

아일랜드는 Transition Year, 일명 TY를 통한 전환학년기 교육을 제공한다. Transition Year은 Junior Cycle을 마치고 Senior Cycle에 들어가기 전 1년 동안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만 15세에서 16세에 해당하는 학생이 참여 대상이며, Traditional Leaving Certificate와 Leaving Certificate Vocational Programme(LCVP)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Transition Year은 1974년 당대 교육부 장관인 Richard Burke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Richard Burke는 경쟁적인 교육 환경으로 인해 아일랜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성찰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살아가게 될 사회는 어떤 곳인지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Transition Year이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아일랜드의 확고한 교육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Transition Year은 Junior Cycle이 종료된 직후 학생들이 1년간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직업 경험, 사회 경험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계발을 하고, 사회적 인식 및 기술을 중점적으로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Transition Year은 현재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장, 전환학년 코디네이터, 전환학년 핵심팀, 타 교과 교사들 간의 팀워크가 Transition Year의 성공적인 운영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③ 아일랜드 탐사 목적

Transition Year을 운영하고 있는 아일랜드를 탐사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내 Transition Year의 성공적인 정착 요인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다. 아일랜드는 한국과 유사하게 경쟁적이고 학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있는 국가이다. Transition Year 역시 시행 초기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도 시행을 반기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교육부의 지속적인 시스템적 지원 하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교육과정 내 강력한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따라서 Transition Year 시행 사례에 대한 분석은 강력한 학력지향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자아 및 진로 탐색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관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기업 및 대학, 진로기관과 학교의 연계 운영 프로세스 수립을 위한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하다. 아일랜드 Transition Year의 운영에는 정부, 교사, 기업, 학생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학생별로 경험하는 Transition Year의 형태도 학년 운영에 관여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Transition Year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진로연계학기에 적용하기 가장 알맞은 교육의 운영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④ 아일랜드 탐사 기관

아일랜드 탐사 목적에 따라 선정한 기관은 <표 9>와 같다.

<표 9> 아일랜드 탐사 기관

아일랜드 탐사 기관 1. Dublin City University	
인터뷰 장소	Dublin City University
인터뷰 일시	2024년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인터뷰이	Colm O'Reilly
아일랜드 탐사 기관 2. Foroige	
인터뷰 장소	Tram Cafe Albert College
인터뷰 일시	2024년 6월 27일 오후 3시
인터뷰이	Bryan Gavin (Training, Learning and Development Manager)

- Dublin City University - Colm O'Reilly 인터뷰

Dublin City University(이하 DCU)는 아일랜드의 주요 대학 중 하나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폭넓은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DCU는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과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Transition Year 학생들은 일정의 일부로 대학에 와서 공학, 물리학, 심리학 등의 모듈을 수강하며, 학문적 관심을 확대하고 대학 생활에 대한 사전 경험을 쌓는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Senior Cycle로 진급하기 전 대학 수준의 학습을 경험하게 하여, 향후 진로 선택과 학문적 목표 설정을 지원한다.

DCU의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첫째, 공학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이 엔지니어링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 수 있다. 둘째, 심리학 세미나를 통해 심리학의 기본 원리와 실험 방법을 학습하며, 심리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셋째,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다양한 과학 실험을 통해 실험 기술과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 상담을 통해 대학 생활과 진로 선택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DCU는 상기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Transition Year 기간 동안 학생들이 실제 대학 수업을 경험함으로써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제공한다.



[그림 10] Dublin City University 탐사 단체 사진

- Foroige - Bryan Gavin 인터뷰

Foroige는 아일랜드 전역에서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로, 아일랜드 전역에서 600개 이상의 자원봉사자 주도 클럽을 운영하며 50,000명 이상의 청소년과 5,500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Foroige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oroige는 Transition Year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및 협력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 NFTE(Network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핵심 비즈니스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FTE 프로그램은 학교 및 청소년 센터에서 제공되며, 학생들이 비즈니스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Foroige는 디지털 기술, 건강 및 복지, 환경 보호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전인적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림 11] Foroige 탐사 단체 사진

⑤ 아일랜드 기관 탐사 내용

Dublin City University와 Foroige 탐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Transition Year의 운영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은 학교별 인프라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Transition Year 운영을 위한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일부 학교는 정규 학년 과정과 병행하여 Transition Year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짧게 경험하며 학교의 일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DCU는 Transition Year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공학, 물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대학 과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문적 관심을 확대한다. 학생들은 학교와 병행하여 대학 과정을 수강함으로써 대학 생활에 대한 사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은 일주일에 하루 대학으로 와서 두 개의 모듈을 수강하며, 이는 학생들이 실제 대학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대학 수준의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은 대학 중퇴율이 일반 학생들보다 낮다고 밝혔다.

Foroige는 리더십 개발, 기업가 정신,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Foroige는 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과 진행자 매뉴얼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습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혼합한 세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 외에도 다양한 실질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Foroige는 학교마다 TY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학교는 정형화된 프로그램 운영 구조를 갖는 반면 다른 학교는 더 유연하게 Transition Year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oroige는 특히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차원의 Transition Year 지원 현황

DCU와 Foroige는 모두 TY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는 중앙 정책을 통해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Foroige는 정부 부처, 기업 후원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T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 방식은 다양하며, 주로 자선단체로서 여러 정부 부처, 기업 후원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Foroige에서 운영하는 특정 프로젝트는 법무부, 교육부, 보건부 등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특정 해의 Transition Year 프로그램 참여자가 적어 기관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 Transition Year의 대학 연계 운영

DCU는 대학 차원의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의 제공자로서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과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DCU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병행하여 대학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DCU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공학, 물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 생활에 대한 사전 경험을 통해 학문적 준비를 강화한다.

DCU는 또한 TY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외에도 다양한 실질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대학에 와서 두 개의 모듈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는 학생들이 실제 대학 생활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법학과 정치학 모듈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 대학에 와서 오전에는 법학, 오후에는 정치학 수업을 듣고, 나머지 주간에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리듬과, 고등학교와 차별화된 형태의 자기 관리 요구에 익숙해질 수 있다.

- Transition Year의 지역사회 연계 운영

Foroige는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Foroige는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클럽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자원봉사자가 주도하는 클럽과 서비스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운영되며, 자원봉사자들은 Foroige를 통해 교육을 받고 매뉴얼과 지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Foroige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사회적 인식과 참여를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은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Foroige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⑥ 아일랜드 진로교육의 장점

- 개인적 성장 도모

Transition Year은 학생들이 학업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Dublin City University(이하 DCU)는 TY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과 활동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또한, Foroige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및 협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다. 더불어 Transition Year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은 학생들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학문적 및 실용적 기술 습득

학문적 및 실용적 기술 습득 측면에서도 Transition Year은 강점을 지닌다. 예컨대 DCU는 학생들이 공학, 물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대학 과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관심을 확대하고 대학 생활에 대한 사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Foroige는 디지털 기술, 건강 및 복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Foroige의 NFTE(Network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핵심 비즈니스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을 Transition Year 기간 내에 학습할 수 있게 된다.

- 사회적 인식 및 참여 역량 강화

사회적 인식 및 참여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Transition Year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인터뷰한 기관 중 Foroige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외에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참여 기회의 제공은 학생들이 단순히 학업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 진로 탐색 및 준비

Transition Year은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및 준비의 기회를 제공한다. DCU는 다양한 진로 상담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Senior Cycle로 진급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Foroige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탐구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학생들은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진로 탐색을 지원받으며 자신의 흥미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⑦ 아일랜드 진로교육의 한계점

- 학교 간 인프라 격차

DCU와 Foroige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을 정형화된 구조 내에서만 운영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게 하며,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의 격차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경험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프라 격차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Foroige의 인터뷰에 따르면,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동일한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일부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만 제공되어,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참여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는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 학생의 참여도

학생들의 참여도 또한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의 한계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DCU의 인터뷰에 따르면, Transition Year 기간 동안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동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Transition Year를 휴식 기간으로만 여길 수 있다. 특히 학업에 몰입하고 있는 학생일 수록 Transition Year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TY 기간 동안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과 학습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학업에서 벗어난 휴식 기간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 부여의 문제는 학생들이 TY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문적 및 개인적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

3) 영국

① 영국 기본 학제

영국의 학제는 유/초등교육 7년, 중등교육 5년, 후기 중등교육 2년, 그리고 고등교육으로 구성된다. 의무교육은 만4세-16세의 12년으로,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포함하며, 16세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결정을 함으로써 sixth form에 진학할 것인지, further education 기관에 직업 교육을 받을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등을 선택하게 된다. 흔히 sixth form 과정이라 불리는 후기 중등교육 2년을 마친 후, 3년 간의 고등 교육 과정에 진학하는데, 고등 교육 과정은 certificate 1년, diploma 2년 과정의 3년을 기본으로 하여 석사의 경우 1년, 박사의 경우 3년을 더 교육받아야 한다.

영국의 유/초/중등 교육은 key stage라고 불리는데, key stage 1~2단계는 초등, key stage 3~4단계는 중등에 해당한다. key stage 4단계는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라고도 불리는데, GCSE는 후기 중등 교육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은 key stage 3단계(9학년)에 영어, 수학, 과학, 종교, 체육의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시험을 칠 과목을 선택하고, key stage 4단계(10-11학년)에 수업 및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성취도는 1-9등급제로 제시되며, 5등급을 받아야 하는 영어, 수학을 제외하고 4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재학생 중10%가 재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최소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유급시키는 경우는 없지만 성적이 낮은 경우 직업 과목을 적극적으로 추천받게 된다. 이 시험에 의해 한국의 고등학교 2,3학년에 해당하는 후기 중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다.

후기 중등 교육 중 sixth form은 선택과목제로 운영되며,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A-level 시험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경우와 예체능이나 직업 관련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특히 further education college는 예체능이나 직업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비학위 기관으로, 한국의 특성화고에 해당한다.

영국의 학제는 <표 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0> 영국의 기본 학제

학제명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타 명칭		GCSE 과정 (10-11학년)	A레벨 혹은 Sixth form (12-13학년)	
연령	만4-11세	만11-16세	만16-18세	만18세 이상
기간	7년	5년	2년	3-5년
국가 교육과정 단계	Early years → key stage1 → key stage2	Key stage 3 → key stage 4	Key stage 5	
자격/시험	SATs	GCSEs	A-level 혹은 Vecational	학사 (Degree 혹은 Professional Awards)

② 영국 진로교육

영국 중등교육에서는 전문 직업 자격증 취득을 위해 최소 5과목, 10과목 이상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으며, GCSEs 시험을 통해 각 과목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만16세(학교에 따라 만14-16세에게 제공되기도 함) 학생들에게 특정 직업 및 산업 분야에 대해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직업 자격 과정이 운영된다. 이때, 예술, 디자인, 비즈니스, 건강과 복지 서비스 등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선택한 과목들이 대학 지원 시 지망하는 전공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으면, 입학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학과에 따라 필수, 권장, 유익 과목을 공지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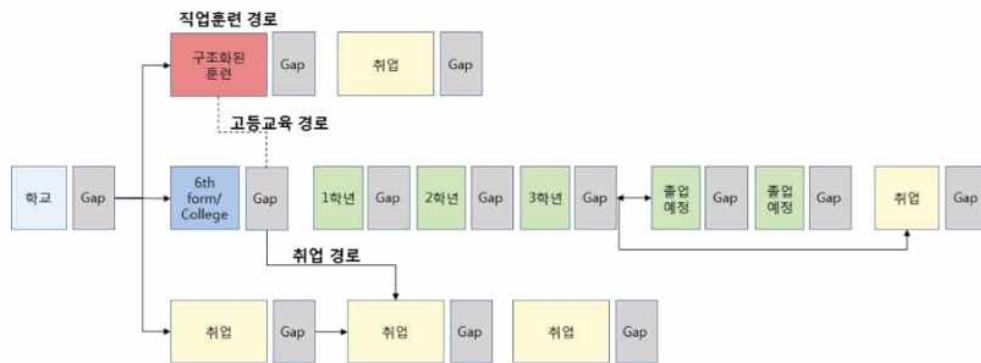
한국에서도 운영되는 현장 직업체험의 경우, Key stage 4단계와 sixth form 과정 중에 1-2주간 직업 현장에서 실제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이 원하는 경우,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을 통해 50일간의 직업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일반적인 도제 제도는 만16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영국의 실무 중심 직업 교육 중 하나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식과 업무, 수행 기술을 현장에서 훈련을 통해 익혀가는 제도이다. 학생의 능력, 고용주가 바라는 수준 등에 따라 진행 기간이 정해지며, 이 기간은 다른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으며,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영국은 교육 제도, 학교 내 교육 외에도 지역 사회와 진로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갭이어, 도제제도와 같은 시스템이 존재한다.

- 갭 이어(Gap Year)

영국의 갭 이어는 덴마크, 아일랜드와 달리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교육 체제 외부에서 진행되지만, 일반적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 3-24개월 정도 공교육 체제를 벗어나 자신의 진로 경력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훈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갭 이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림 10]과 같다.

영국의 갭 이어는 공교육 체제 외의 활동이므로 따로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갭 이어 기관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관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학생들은 여행, 학습,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을 진행해 사회적, 직업적 소프트 스킬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국은 진로 개발들을 실행하고 현장에 사용되도록 서비스 상품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과 연계성을 가진 민간 소속인 영국 진로 개발원이 실행 공동체(진로 개발 실천가)에게 전수하고, 다시 학교 교육과정이나 진로 상담 및 지도로 연계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때 실행 공동체는 대학 및 학교를 중심으로 직업 훈련 기관, 진로 상담가, 직장인 대상 진로 개발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중장기형 진로 개발 전략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를 의미한다.



[그림 12] 영국의 갭 이어

- 도제 제도(Apprenticeship)

도제 제도란 직장에서의 실무 훈련과 공부를 결합한 제도로, 배운 것을 바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도제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은 근무 시간의 최소 20%를 훈련이나 공부에 투자해야 하며, 견습 과정, 견습 수준, 이전 경험 수준에 따라 1-6년까지 진행할 수 있다. 도제 제도의 대상은 만 16세 이상 영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전일교육(full-time education)을 받지 않는 학생이어야 한다. 그 외 별도의 지원 자격은 없다. 도제 제도에는 단계가 존재하는데, 각 단계별 견습을 완료하면 동등 교육 수준을 달성했다고 간주한다. 우선, 2단계는 GCSE와 동일한 수준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3단계는 A-level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4-7단계는 기초 학위, 상위 국가 자격증, 상위 국가 졸업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3단계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을 제공한다. 6-7단계는 학사 또는 석사 학위로 이어지며, 일부 견습에서는 GCSE의 영어, 수학 등 특정 학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제 제도 내 견습생은 훈련(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통해 대학, 대학교 또는 훈련 센터에 다니며 온라인 과정을 수강하거나, 직장 멘토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다. 이때, 주당 최소 30시간 일하면 정규 견습생으로 간주되어 주당 최소 6시간을 훈련에 투자해야 한다.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파트타임 견습생으로 간주된다. 견습생은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16세-18세, 19세 이상이며 견습 1년차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최저임금을 받지만, 19세 이상이며 견습 1년을 마친 후에는 연령에 맞는 국가 최저임금 혹은 국가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견습생은 수업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없고, 배우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제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일과 공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일반 대학 교육에 비해 다양한 산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또한, 동일 업계의 정식 자격 직원보다 임금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견습 기간 동안 습득한 기술에 대한 실제 테스트, 프레젠테이션, 인터뷰, 필기 또는 객관식 시험, 직장 관찰 등의 방식으로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합격해야지만 견습생이 훈련받은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평가는 견습생의 고용주 혹은 교육 제공주가 선택한 최종 평가 기관이 진행한다. 이때, 평가에 실패할 경우,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Resit의 경우, 별도의 교육 없이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다시 치르면 되지만, Retake의 경우 평가를 다시 받기 전 추가 교육을 들어야 한다. 최종 평가를 완료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이트웨이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 또한 고용주와 교육 제공자가 결정한다. 최종 평가는 견습 프로그램 시작 시 계획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견습 기간 시작 시 또는 견습생이 최종 평가에 준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의 최소 3개월 전에 게이트웨이 합의해 교육 제공자, 견습생과 공유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교육 기간 내내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견습생에게 평가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영국 탐사 목적

영국을 탐사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연계학기 운영 모델 개발이라는 본 팀의 탐사 목적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연을 획득할 수 있다. ICEGS의 Nicki Moore는 진로 교육과 관련된 요구 분석, 프로젝트 관리, 평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Nicki Moore는 유럽 전역의 진로지도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청소년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커리큘럼 및 정책을 검토한 경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인터뷰이의 경력을 기반으로 진로연계학기 운영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연을 구할 수 있다. 또한 Anderew Jonse 교수는 2013 제 2회 진로교육 국제포럼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참여하여 한국 자유학기제를 위한 참고사항으로서 영국의 껍 이어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영국의 진로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책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로연계학기의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을 탐구하고자 한다.

둘째, 도제 제도는 영국의 대표적인 실무 중심 직업 교육 중 하나로, 한국에서도 2014년 이후 특성화고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선정해 2학년부터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가며 교육 훈련을 받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가 실시되었다. 2024년 교육부 자료 기준 78개의 사업단, 167개의 과정으로 운영되는 등 특정 계열에서는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파견 기업에서 전공 관련 업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중도 탈락자 비율이 높아 예산 집행 부분에서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원활히 시행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직업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도제 제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④ 영국 탐사 기관

영국 탐사 목적에 따라 선정한 기관은 <표 11>과 같다.

<표 11> 영국 탐사 기관

영국 탐사 기관 1. ICEGS - Nicki Moore	
인터뷰 장소	비대면 Zoom
인터뷰 일시	2024년 6월 28일 오전 10시
인터뷰이	Nicki Moore (Senior Lecturer in Career Development)
영국 탐사 기관(인터뷰이) 2. Andrew Jones	
인터뷰 장소	Brunel University
인터뷰 일시	2024년 7월 1일 오전 11시
인터뷰이	Andrew Jones
영국 탐사 기관 3. Manchester Job Festival	
인터뷰 장소	Metropolitan University-Business school
인터뷰 일시	2024년 7월 2일 오후 2시
인터뷰이	행사 참여 기업 관계자 (GCS, LTSB, Pearson, Trafford & Stockport college group)

- ICEGS - Nicki Moore 인터뷰

ICEGS는 진로 및 진로 지도 분야의 국제 연구 센터로,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경력을 개발하는 방법과 사람들이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좋은 삶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ICEGS는 특히 K-12 단계의 경력 개발부터 진로 교육에 대한 교수자 가이드라인까지 포괄적인 분야에서 연구를 시행해온 바 있다. 인터뷰이 Nicki Moore은 경력 개발 수석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진로 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림 13] ICEGS 인터뷰 단체사진

- Pf. Andrew Jones 인터뷰

Andrew Jones 교수는 경제지리학 출신의 사회 과학자로 현재 Brunel University의 교수직을 맡고 있다. 그는 2004년 ‘갭 이어 조항 검토(Review of Gap Year Provision)’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보고서는 갭 이어의 정의, 유형, 장점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한국이 자유학기제 도입을 앞두고 여러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진로 교육 국제 포럼에 참가하여 갭 이어 관련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림 14] Andrew Jones 인터뷰 단체사진

- Manchester Job Festival

Manchester Job Festival은 견습 제도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제공하고, 견습 제도를 제공하는 기관의 부스를 운영하여 홍보를 하는 행사이다. 해당 행사는 진로, 기술, 취업 가능성 및 네트워킹에 초점을 맞춘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Job Festival에는 약 30개의 기관이 참여하며, 개인, 학교 등 대학 및 견습 과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다.



[그림 15] Manchester Job Festival 탐사 단체사진

⑤ 영국 기관 탐사 내용

ICEGS의 Nicki Moore, Andrew Jones, Manchester Job Festival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진로교육 프레임워크

Nicki Moore는 ‘개츠비 프레임워크(벤치마크)’가 품질, 구현 및 평가 프레임워크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개츠비 프레임워크는 2013년 영국의 진로 지도가 교육에 내재화되는 것을 목표로, Gatsby foundation에서 제작한 Good Career Guidance 보고서 내 정의된 8가지 기준을 의미한다. 영국 북동부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한 후, 2021년에 발표된 Derby 대학의 벤치마크에 대한 평가에서 개츠비 프레임워크의 달성이 학생들의 진로 준비도와 GCSE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후 개츠비 프레임워크는 정부의 진로 전략, 학교를 위한 법적 지침, 대학을 위한 지침의 일부로 채택되어 영국의 진로 교육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개츠비 프레임워크는 안정적인 직업 프로그램(A stable careers programme), 경력 및 노동 시장 정보로부터의 학습(Learning from career and labour market information), 각 학생의 요구 사항 해결(Addressing the needs of each pupil), 커리큘럼 학습을 경력에 연결(Linking curriculum learning to careers), 고용주와 직원과의 만남

(Encounters with employers and employees), 직장 경험(Experiences of workplaces), 추가 및 고등 교육과의 만남(Encounters with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개인 지도(Personal guidance)의 8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개츠비 프레임워크 기준

기준1. 안정적인 직업 프로그램		
정의	모든 학교와 대학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고용주가 알고 이해하는 진로 교육 및 지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 (단과대)학교는 경력 리더가 리더십을 기반으로, 진로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8가지 기준을 모두 추진해야 한다. - 진로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검토, 평가 및 적응, 감사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학교	대학
요구사항	- 모든 (단과대)학교에는 고위 경영진의 확실한 지원을 받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정되어야 한다. - 진로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고용주가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고용주의 피드백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기준2. 경력 및 노동 시장 정보로부터의 학습		
정의	학생들에게 지역 및 국가 노동 시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양질의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 최신 경력 및 노동 시장 정보에 대한 액세스, 다양한 직업에 대한 급여와 공식이 어디에 얼마나 많은지의 정보를 포함한다. -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분야를 물어보고, 해당 산업에 집중해 노동 시장 정보 해석을 제공한다. - 최신 경력 및 노동 시장 정보는 정규 커리큘럼 수업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지방 자치 단체, 지역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조직과 협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학교	대학생
요구사항	-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미래의 학업 선택과 노동 시장 기회에 대한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 만 14세가 된 모든 학생은 진로와 노동 시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여 학업 선택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학부모는 학습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 시장과 미래 학업 선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기준3. 각 학생의 요구 사항 해결		
정의	각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는 이전 학생들을 추적해야 하며, 각 학생들의 교육, 훈련 및 취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약3년 동안 수집하면 현재 학생들의 요구 사항과 과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학교	대학
요구사항	- 각 단계에서 다른 진로 지도가 필요하므로, 각 학생의 필요에 맞게 조언과 지원의 기회가 조정되어야 한다. - 학교는 각 학생에게 제공된 개별 조언과 합의된 내용 등 체계적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후 최소 3년 동안 교육, 훈련, 취업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 대학에서 제공된 조언 기록은 학습자의 교육 이전 단계에서 제공된 기록과 통합되어야 한다. - 모든 학습자는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4. 커리큘럼 학습을 경력에 연결		
정의	커리큘럼에 직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과목 교사가 관련 산업을 방문하고, 과목 책임자와 고용주 간의 연계를 구축하며, 고용주를 수업에 초대하여 수업을 제공하거나 공동으로 제공하고, 과목별 업무 계획과 관련된 직업별 활동을 개발한다.	
이해관계자	학교	대학
요구사항	- 모든 교사는 커리큘럼 학습을 직업과 연결해야 한다. - 14세가 되면 모든 학생은 다양한 STEM 과목이 사람들의 직업 진출과 효과적인 근로자가 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	- 모든 과목 담당 직원은 직업 중심이 아닌 과목에서도 커리큘럼 학습을 경력과 연결해야 한다.

기준5. 고용주와 직원과의 만남		
정의	(단과대)학교는 고용주와 기존 관계를 강화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진로 박람회나 학생들이 지역 고용주를 만나 고용주와의 상호 작용을 개인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용주가 있는 진로 박람회를 계획하는 등 학생들이 놓치지 않도록 백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해관계자	학교	대학
요구사항	- 모든 학생은 고용주로부터 일, 고용 및 직장에서의 가치 있는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가져야 한다. - 11세가 되면, 매년 적어도 한 번 고용주와 만남을 가져야 한다.	- 매년 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학습자는 고용주와 적어도 두 번 만남을 가져야 한다. - 대학은 학습자의 시간제 취업과 이것이 학습자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고려해야 한다.
기준6. 직장 경험		
정의	- 학생들은 업무 경험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동안 어떤 기술을 입증해야 할지 생각해보도록 권장 받는다. - 대학은 고용주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직원을 따라다니는 것 외에도 실제 업무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고용주와 함께 보낸 시간에 따라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반성하고 책자에 기록하고 새로운 기술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도록 권장한다.	
이해관계자	학교	대학
요구사항	- 모든 학생은 직장 방문, 직장 견학 또는 직장 경험을 통해 직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업 기회를 탐색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 16세가 되면 모든 학생은 시간제 일자리 경험 외에도 적어도 한 번은 직장 생활을 경험해야 한다. - 18세가 되면 모든 학생은 시간제 일자리 외에도 한 가지 이상의 경험을 해야 한다.	

기준7. 추가 및 고등 교육과의 만남		
정의	모든 학습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학습 기회를 이해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학교	대학
요구사항	- 16세가 되면 모든 학생은 6학년, 단과대학, 견습 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학습 기회 제공자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야 한다. - 18세가 되면 대학 지원을 고려하는 모든 학생은 적어도 두 번 이상 대학을 방문하여 교직원과 학생을 만나야 한다.	- 학업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모든 학습자는 경력의 다음 단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및 훈련 제공자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야 한다.
기준8. 개인 지도		
정의	일대일 지도에 특화된 모델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도를 모니터링하고 지도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강력한 품질 보증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학교	대학
요구사항	- 모든 학생은 내부 또는 외부의 진로 상담자와 지도 인터뷰를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모든 학생은 16세가 되기 전에 최소한 한 번 면접을 받아야 하며, 18세가 되기 전 추가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모든 학습자는 학업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는 적어도 한 번 면접을 받아야 한다.

- 갭 이어 운영 체제

갭 이어는 공교육 외부의 활동으로 다양한 민간 기업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갭 이어 기관과 학생을 연결해주는 지원 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비싼 사립 학교에서 지원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여행, 학습,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의 갭 이어는 시장화되고 상업화된 활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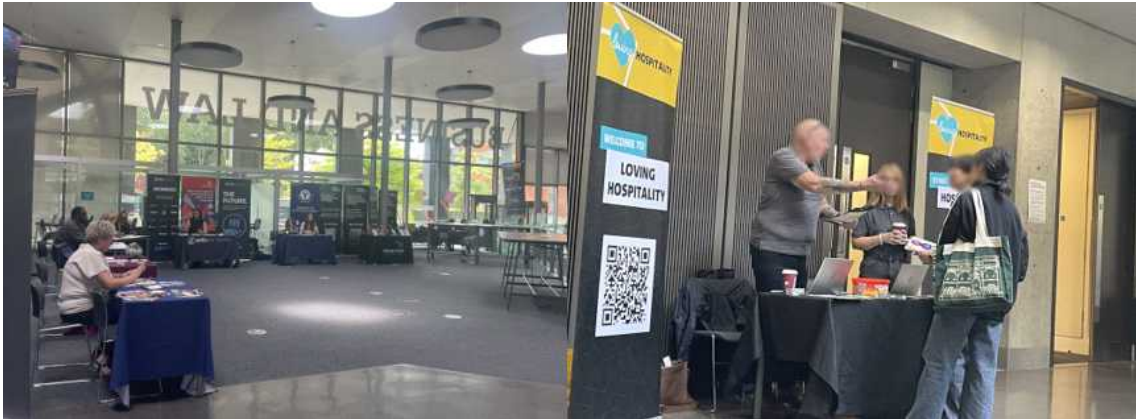
갭 이어는 근무 경험, 자원봉사 활동 경험, 독립적인 여행 경험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기술, 소프트 스킬, 능력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갭 이어를 통해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에 있고 싶은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갭 이어가 고소득층의 1년 간의 휴가로 여겨지는 부정적 인식도 제기되어 오고 있다. 영국의 갭 이어는 민간 시장적으로 주도되어왔기에, 자원봉사나 여행과 같은 프로그램이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갭 이어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국가적 움직임이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 무산되어 현재도 세부적인 정책적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 행사를 통한 정보 제공

Manchester Job Festival은 지역사회 장소를 활용하여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제 제도에 대한 열린 정보와 지원 기회를 제공한다. Job Festival의 메인 스테이지와 스킬 존에서는 기업의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번 행사에서도 17개의 기업이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였으며, 그들은 약 30분 간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기업의 견습 제도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커리어 존 및 네트워킹 존에서는 부스 형식으로 기업의 홍보가 이루어지며, 기업에 대한 소개, 기업별 도제 제도 프로세스,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제공된다.

행사에 참여한 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행사 참가 목적, 행사의 이점, 어려웠던 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그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과 직접 만나 자신의 기업에 대해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산업 분야의 기업인 GCS는 많은 청년들이 건축 분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해소하고 건설 분야의 업무와 취업 기회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을 만족한다고 언급하였다.

Job Festival은 기업 뿐만아니라 참여 학생에게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였다. 접근성이 좋은 지역 사회 대학에서 개최되는 무료 행사이며, 맨체스터 뿐만아니라 런던, 버밍엄 지역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재정적 상황과 관계없이 도제 제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각 기업의 제공자가 구두로 제공하는 설명과 참여 학생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인쇄해 둔 리플릿은 견습 제도의 다양한 선택지를 학생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6] Manchester Job Festival 행사장 내부

⑥ 영국 진로교육의 장점

-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영국의 진로 교육은 개츠비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설명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개츠비 벤치마크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 평가에 있어서 널리 활용되며, 개츠비 벤치마크가 다루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는 담당 기업 자체의 평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계화된 평가 프로세스는 증거 기반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Nicki Moore는 진로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교사 및 강사에게 제공할 때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함께 제공해야만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Nicki는 평가 방법으로 Kirkpatrick 모델과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영국 내 진로 교육 평가를 위한 다양한 모델 및 프로세스가 존재하며, 그것이 진로 교육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영국에서는 도제 제도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Festival of Apprenticeship이 매년 개최되며, 본 팀은 그 중 Manchester Job Festival에 방문하였다. 해당 행사는 영국 내 세계의 지역(London, Birmingham, Manchester)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의 제한된 정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접근성 좋은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업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실제 도제 제도 지원의 기회와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자원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Nicki Moore는 기술 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의 인솔자가 학생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종류의 행사에서 그저 무료로 나눠주는 상품을 모으느라 인/구직에 관한 질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⑦ 영국 진로교육의 한계점

- 파편적인 진로교육 시스템

Nicki Moore에 따르면 영국의 진로 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매우 파편적이라는 것이다. 학교를 다니던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전환할 때 겪는 직업 경험은 모두 다르

며,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진로 지도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갭 이어 또한 마찬가지로 정규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식기를 가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진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경험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국 내부에서도 통합된 진로 교육이 있다면 사람들이 일과 일 사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진로교육의 상품화

영국의 진로 교육은 민영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다보니 진로 교육이 상품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Andrew Jonse 교수는 거북이 보호를 위한 해외 자원 봉사 지원자는 매우 많았지만, 필요한 봉사자 인원은 단 3명이었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많은 자선 단체들은 규모가 작은 편이며, 대규모 조직 또한 갭 이어를 지원하는 상당한 수의 자원 봉사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갭 이어 프로그램의 상품화를 유발하였으며, 갭 이어가 상류층의 휴식기라는 인식을 낳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 교육의 민간 사업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있으나, 지나친 상업화 및 상품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의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가적 개입이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4. 탐사의 시사점 및 한계

가. 탐사의 시사점

국내 진로교육 현황 조사, 덴마크의 FGU 및 Efterskole, 아일랜드의 Transition Year, 영국의 Gap year 및 Apprenticeship 조사로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크게 안정적 진로 경험 제공, 사회적 인식 및 기술 확립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한다. 먼저 안정적인 진로 경험 제공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덴마크의 FGU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인턴십 기관을 알선하여 학생들이 직업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상술한 체계를 통해 학생들은 급여와 함께 실무 경험을 통한 직업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인턴십 경험에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덴마크의 Efterskole와 비교하였을 때 학생들이 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직업 경험을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연계학기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더불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 스킬의 함양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FGU와 아일랜드 기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GU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수행하는 활동이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했다. 예컨대, 학생들이 목공 수업을 통해 제작하는 작품이 실제 커뮤니티의 행사 자원으로 활용되며, 조리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FGU의 사례로 살펴본 지역사회와 학생 활동의 연계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살아가게 될 사회가 어떤 곳인지 성찰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아일랜드 Transition Year의 도입 목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Apprenticeship을 사전에 경험한 사람들이 Job Fair에 참여하여 청

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도우며, Apprenticeship 참여자들 사이에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앞선 세 국가의 사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는 실질적인 직업 경험 제공, 소프트 스킬의 함양 차원에서 유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진로연계학기 역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점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커뮤니티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체계적인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진로연계학기 운영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진로연계학기를 위한 운영 자원은 크게 인적, 물적 자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진로연계학기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각 교육 분야의 전문가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덴마크의 FGU Skibby에서는 각 직업군에서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적 자원 확보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및 직업훈련 경험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의 확보는 학생들이 직업 세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진로연계학기에서도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진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기관을 주체로 진로연계학기에 대한 시스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정부와 각 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시스템 차원의 재정 지원은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예컨대, 특정 연도에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수가 미달되어 기관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기관이 학생 수요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 진로연계학기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하는 교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원에 대한 지원은 크게 교과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교과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차원에서 살펴보면, 진로교육과 교과교육이 별개의 것으로 인식될 경우 고등교육이 불필요한 직종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교과교육에 흥미를 잃고 고등교육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진로교육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둘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덴마크의 FGU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리 실습 수업에서 수학적 개념을 연계하여 학습하는 등 교과 교육과 진로 교육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FGU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교과교육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진로교육을 받으면서도 교과목 내용과 연계하여 전이를 향상할 수 있도록 교과교사의 진로교육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단 이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두거나 교사가 별개의 시간을 내어 수강해야 하는 자율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개발할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비실효적인 정책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적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진로연계학기 운영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현장 교원의 업무 부담은 기존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정책에서도 주요한 해결 사안으로 지적되어왔다. 명확한 업무 분담 과정 없이 교과연계 진로교육,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 등이 운영될 경우 교과 교사 개인에게 수업연구개발 업무의 책임이 모두 주어지거나, 학교 당 1명 수준인 진로 교사에게 관련 업무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원의 업무 체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FGU의 사례처럼 전문 Counselor 제도를 도입하여 각 학교에서 진로 상담 및 진로교육 기관 탐색의 역할을 수행할 인력을 학생 수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나 학생 진로 설계에서는 교과교사, 담임교사 및 진로교육 담당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각 담당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진로 교육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일랜드의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Foroige에서는 청소년 중심의 접근을 유지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부적인 프로그램의 평가는 보다 짧은 주기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학 또는 국가 차원의 심층적인 프로그램 평가 또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며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었다. 영국 또한 Gatsby Benchmark라는 진로교육의 평가 프레임워크를 교육 전반의 근간으로 사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진로연계학기에서도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한다.

5. 진로연계학기 교육 모델 개발

가. 진로연계학기의 목표

진로연계학기의 목표 설정을 위해, 진로연계학기의 항목별 목표와 해외탐사국(영국, 덴마크,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에서 제시하는 목표, 해외 탐사에서 도출된 전환학년의 시사점을 종합하였다.

우선 진로연계학기의 도입취지와 항목별 목표를 살펴보았다. 진로연계학기는 학생의 교과목 학습과 기초학력 보장, 교과 외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역량 개발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상급 학교급·학년군으로 전환 시 기초학력 보장, 교과 이수 경로와 연계한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를 목표로 한다. 즉, 진로연계학기는 고등학교 입학 전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보조함과 동시에 학생의 교과 지식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간이다.

해외탐사를 통해 다음의 전환학년 목표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덴마크의 FGU에서는 교육과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직업 훈련, 일반 중등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추후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agu, egu, pgu의 세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심도 있는 직업훈련과 교과지식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덴마크의 Efterskole는 학생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했다. 특히 기숙 학교 시스템과 교과 외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학생의 자율성, 의사소통 기술 습득 등이 고르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일랜드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업적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직장 체험,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주니어에서 시니어 사이클로 천천히 이행할 수 있게 대비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의 직업체험과 인턴십 등이 Transition Year에 적극적으로 강조되었고, 학생들의 직업체험 선택의 폭도 넓었다. 위를 종합했을 때, 탐사국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체험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학생들의 미래 사회 소프트 스킬 함양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분석 내용을 통해 도출한 진로연계학기의 최종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교과목 내용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들이 직무 내용과 직무 현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자신의 희망 진로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3. 고교학점제 진입 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개별화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도록 한다.

나. 진로연계학기 운영 방안

앞서 논의한 진로연계학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 연계 진로교육, 지역사회 연계 직업 체험 강화, 학생 주도 진로 탐색 시간 확보의 3가지 측면에서 운영 방안을 탐색하였다. 각 목표와 운영 방안은 <표 13>과 같이 연결된다.

<표 13> 진로연계학기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 방안

진로연계학기 목표	진로연계학기 운영 방안
자신의 진로와 교과목 내용 간 연계성 파악	교과 연계 진로교육
직무 내용과 직무 현장에 대한 실제적 경험, 자신의 희망 진로 분야에 대한 이해도 증진	지역사회 연계 직업체험 강화
고교학점제 진입 전 개별화된 진로의 자율적 탐색 및 설계	학생 주도 진로 탐색 시간 확보

1) 교과 연계 진로교육 강화

교과 연계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교과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진로 탐색 활동을 지속하고, 진로 탐색을 통해 교과 지식 학습의 동기를 얻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각 교과에서는 덴마크의 FGU에서 교과 내용을 직업체험 내용과 연결하여 가르쳤듯 다양한 진로 영역의 직무, 혹은 해당 진로를 위해 필요한 역량과 교과의 교육과정·교과서 내용을 종합하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때 고등학교 진학 대비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목 내용과도 일정 부분 연결 지점을 지목하되, 진로와 교과지식의 연계를 통한 진로성숙도 향상·교과지식 습득의 균형 잡힌 발전과 교과지식 학습동기 함양이 주 목적임을 상기하여 과도한 선행학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혹은 교육청 차원에서 각 교과 내용을 다양한 진로 영역과 연계하여 교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 자료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덴마크의 FGU에서도 교사가 모든 진로 영역에서 직업전문성을 갖고 교과에 적용한 수업을 구상하기 어려워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목과 진로 영역의 연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관찰되었다.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도 직업훈련 교사와 교과 교사가 함께 내용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 때문에 교과 교사와 직업훈련 교사 모두에게 추가적인 수업설계 부담이 지워졌다.

이러한 한계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교과 연계 진로교육 자료를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진로 영역에 대한 안정적인 교과 연계 진로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과 성취기준과 진로교육 성취기준을 융합한 교과연계 진로교육 성취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도구가 설계되어야 한다. 개별 교사가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도구를 개별 수업 당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은 각 교과목별로 성취 기준을 개발하고, 교수 방법과 평가 도구에 대해서는 교수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성취 과목에 맞게 여러 가지 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때 학년 진급에 따라 제공 프로그램의 수준이 상이해야 한다는 계열적 특성을 고려해, 제공되는 진로 교육은 나선형 모형을 따라야 하며, 교과적 지식의 내용에만 머물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을 넘어선 교수 방법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형 수업 방식이나 직접 전문가를 대면하는 수업이 효과적인 대안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교수 방법 외에도 영국에서 실행되는 캐러셀 모델, 발튼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캐러셀 모델은 학생들이 돌아다니며 수업을 받는 모델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로 수업, 성교육, 관계 교육, 금융 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 프로젝트의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추후 고등학교 진학 후 고교학점제의 실행으로 이동식 수업이 만연해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동시에 모든 반에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교수자의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학기당 4회 정도의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발튼 모델은 특정한 요일의 특정 그룹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당일 진로 체험에 참여하여, 고용주와 함께 활동하거나, 모의 면접 등을 진행해볼 수 있다. 현행 진로 체험 수업에서도 특정 기관을 방문하는 방식의 수업이 진행되지만, 아무 사전 준비 없이 혹은 학생들의 진로와 큰 연관성이 없는 기관에 방문하여 한 활동이 끝나고 나면 관련 내용이 소멸되는 단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을 교수 방법으로 제안할 경우, 학생들에게 고용주를 통해 알아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질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로 체험을 마친 후에도 디브리핑을 통한 성찰 과정을 통해 계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전체적인 운영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위한 수업 자료를 개발한다. 이때 교과목 단원별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진로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 및 수업 방법,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같은 단원에서 다양한 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마련하여 학교의 진로직업희망 현황과 학생의 흥미, 전체 교과목 운영의 균형 등에 따라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개발된 교과 연계 진로교육 수업 자료를 개별 교과 교사에게 배포한다. 각 학교에 개설된 교과목만을 배포하지 말고, 전체 자료에 전체 교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청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것이 융합수업 운영 등 다양한 활용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별 교과교사는 교과 연계 진로교육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학기별 교과교육과정의 어느 부분에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적용할지 대략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각 학교 진로교사에게 제출한다. 사전에 최소 3차시에서, 3가지 이상의 진로영역을 다루도록 하는 등 설계 관련 기준을 수립해야 교과 연계 진로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진로교사는 교과교사가 제출한 교과 연계 진로교육 수업 계획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최종 수합본을 지역 교육청으로 전달한다. 다섯째, 학기가 종료될 때 개별 교과교사로부터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운영하며 사용했던 교수-학습과정안 및 수업자료(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를 수정해 사용했을 경우), 교과 연계 진로교육 운영에 대한 성찰 등을 수합하여 교육

청으로 전달한다. 이것은 다음 교과 연계 진로교육 수업자료 개발 및 수정·보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 연계 직업체험 강화

탐사국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생의 실제적인 직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혹은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었다. 학생 설문조사에서도 실제적인 진로 체험, 직업 체험 경험 확대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연계학기 운영 시에도 지역사회 연계 직업체험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진로 영역과 직업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 수업과 직업체험을 병행하기 위해, 진로연계학기 중 1개월 정도 주 1일, 주 2~3시수를 할애하여 학생의 '학교 밖 진로체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의 지역사회 연계 직업체험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각 직업체험 기관에서 학생들의 진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별 학생의 필요와 흥미에 따라 적절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즉, 현재 운영 중인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진로센터)에서 관내 양질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각 프로그램이 개별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고, 진로센터 프로그램만으로 자신의 진로 관련 체험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우선, 진로센터에서 지역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한 진로 영역에 맞게 설계하고, 각 학교로 전달하는 역할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직접 직업체험 기관을 탐색할 경우 각 기관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충분히 평가할 시간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간 질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학교의 탐색 능력에 따라 학생이 경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종류와 질이 달라져 안정적인 양질의 직업체험 제공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지역 진로센터에서 프로그램의 선정과 관내 학교로의 전달을 담당해야 한다.

이때, 기존 교과의 내용을 직업 과목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학생들이 미래 삶에 대한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강조하여 진로 탐색 경험을 조직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 탐색 방법, 구직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 탐색을 교과 지식적으로 돕는 반면, 직업 체험을 통해 일의 세계에 대한 실재를 연결하여 적극적인 직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 밖의 세계를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배움과 실재를 연결해 fidelity를 줄일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 직업 체험은 학생의 관심사를 진로 상담사 혹은 담임교원 등이 파악하고, 일일체험을 통해 참여 관찰을 진행한 후 맞춤형 학습 목표 수립 및 본격적인 체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사회 연계 직업 체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직업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으로, 단순히 직업 훈련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별 관심사에 바탕을 둔 체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 경험을 조직할 때 이미 설계된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학습 목표를 학생이 교원 혹은 진로 상담가와 함께 구성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직업 체험을 이행할 때, 가능하면 지역사회가 단지 경험적 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기관이나 단체가 직면한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학습자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와 학습자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가 새로운 지식, 기술 및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둘째, 각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개별 학생에게 적절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전문 진로상담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 계획에 따르면, 학교 진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 상담 내실화를 공고히 하고자 함을 알 수 있으나, 실제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아일랜드 DCU는 TY 기간 내 대학교로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통해 대학 생활과 진로 선택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덴마크 FGU는 별도의 상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FGU Vesterbro는 입학 전부터 지역 사회의 상담사와 상담을 한 상태이며, 각 수업 교사가 진로 상담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월1회 이상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한다. 실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상담을 해주는 교사와, 기업과 협력해 학생들이 일자를 얻도록 도와주는 별도의 상담사들 또한 존재하며, 이 상담사는 학생과 함께 학생에게 필요한 커리큘럼을 계획한다. FGU skibby의 경우에도 연2회 학생, 상담사, 교사가 모여 학생의 커리어 여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상담사와 교사가 목표 달성을 위해 협업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영국의 개츠비 벤치마크에서도, 학생들에게 일대일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의 진로 상담사와 지도를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적인 부분 외에도 효과적인 진로 탐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 담당 교사와 진로 상담사가 학교에 존재해야 하며, 그들 간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분기당1회 이상 진로 상담사 및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력 개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이때 개인별 진행할 지역사회 연계 직업 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동 교육과정의 존재하기 때문에 커리큘럼 차원에서의 개별화는 어렵지만, 개별화된 진로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과 진로 탐색 경험 경로에 대해 논의하는 진로 교사는 경력 개발 분야의 전문적 역할에 대해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직 진로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어떤 직업을 체험해 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의 경우 자율 신청만으로 적절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갖춘 진로상담사가 학생을 지도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지역 진로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관한 직업체험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사전 승인을 획득하여 개별 진로체험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각 학교의 장 혹은 진로센터에서 학생이 체험하려는 기관에 학생의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존재하며, 학생이 기관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관한 특수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되는 체험의 경우 사전에 학교장 혹은 진로센터의 승인을 받아 개별 진로체험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센터에서 일괄 설계 및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다양한 진로를 포괄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

3) 학생 주도형 진로탐색시간 확보

학생의 주도적인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 1시수 정도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한 학기 동안 자신의 관심 진로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자신이 경험한 직업체험 및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5p 정도의 진로 설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학기말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진로상담사 및 담임교사와의 진로 상담을 충분히 거친다면 의미 있는 진로 탐색이 가능할 것이고, 개

별 학생의 진로계획을 데이터화하여 관리 및 필요시 고등학교로 이월한다면 진로연계학기에서의 진로 탐색 내용이 고교학점제 등으로 연동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 진로연계학기 평가 방안

탐사한 세 국가 모두 진로 교육의 효과성을 탐색하고, 학생들의 역량에 변화가 있었는지 교육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앞서 설정한 진로 교육의 세 가지 목표인 교과 연계 진로교육, 지역사회 연계 직업 체험 강화, 학생 주도형 진로 탐색 시간 확보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학생, 학교, 지역사회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 평가는 학생 자기 평가와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학생 자기 평가로는 진로 성숙도 검사를 통해 진로 교육의 전후에 진로 탐색, 결정, 직업 수행 등 진로 관련 경험 전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진로 성숙도 검사에 포함할 수 있는 하위 요소로는 인지적 직업 성숙도 검사, 진로 의식 발달 검사, 진로 자기 효능감 검사가 있다. 따라서, 진로 성숙도 검사의 하위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으며, 교육 제공자는 정의된 하위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 자기평가를 진로교육 전/후에 시행해 퍼포먼스의 차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표 14> 진로 성숙도 검사의 유형

대분류	정의	하위 척도	척도 특성
인지적 직업 성숙도 검사	자기 탐색 및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 대학의 학과와 대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미래에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척도	직업 세계, 직업 선택, 작업 조건, 교육 수준, 직업 특성, 직무 수행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 탐색, 진로 결정, 진로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
진로 의식 발달 검사	개인에게 알맞은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인 능력요인과 흥미, 가치관 등의 정의적 특성의 측정과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척도	확신성, 관계성, 독립성, 진로 정보 처리 능력, 현실 타협성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 의식이 발달 정도가 높음
진로 자기 효능감 검사	진로 탐색, 진로 결정, 직업 수행 및 적응 등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척도	[태도] 결정성	자신의 진로 방향과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확고한가 아니면 우유부단한가 하는 정도
		[태도] 독립성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독립적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
		[태도] 계획성	자기 자신의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는지의 정도
		[태도] 진로 세계 정보	직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
		[태도] 직업 능력 선호	직업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선호의 정도
		[태도] 직업 준비 계획	진로를 결정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사전준비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하는 정도

포트폴리오 평가는 덴마크 FGU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은 매 수업 종료 혹은 프로젝트 종료 후마다 자율적으로 배운 내용에 대한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반성(reflection)을 입력하게 되고, 추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는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학습 동기 유발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험의 증대, 학생의 강점 및 잠재력 파악, 수업 효과 증대, 기록 보존 및 작품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는 평가 도구로서,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개별화 포트폴리오로, 덴마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 활동을 반성, 탐색,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 자신의 학습 과정에 관한 소유의식을 촉진하고, 학생 자신의 선택 및 자기 평가를 강조하여 스스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피드백 포트폴리오로, 교사, 학부모, 학생 세 명이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학생과 교사는 공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학생의 작품과 교사의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책무성 포트폴리오로, 교사 책무성을 과시하기 위해 구조화된 지침에 따라 학생과 교사들이 제출한 학생 작품, 교사의 기록, 표준화 자료들을 수집한 것으로 구성한다. 현재 한국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가장 유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연계학기의 시행에 따라 진로 체험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면, 교수자가 학생의 성장을 모두 관찰할 수 없으며, 개별화로 인해 구조화된 지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별화 포트폴리오 방식과 피드백 포트폴리오 방식을 결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탐색 경험을 작성하되 교사 또한 이에 협조하여 학생의 진로 목표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평가는 학교 관리자와 진로 코디네이터(교수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학교 관리자의 측면에서 교수자는 학생을 포함한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학교 진로직업 시스템 구축 역량, 학교 진로직업교육 지원 역량, 학교 진로직업교육 환경 조성 역량이 적절히 개발되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표 15> 학교 평가 준거

역량	하위 요인
학교 진로 직업 시스템 구축 역량	- 목표 관리 - 성과 관리 - 교육 문화 조성
학교 진로직업교육 지원 역량	- 교원 교육활동 지원 - 학교 교육과정 지원 - 학생 지원
학교 진로직업교육 환경 조성 역량	- 인사 관리 - 자원 관리 - 지역 사회 관리

진로 코디네이터 측면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 DEAL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본 모델에 따르면, 교사는 각 단계별로 질문을 작성해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시작하기 전 비판적 사고의 태도를 가지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발튼 모델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체험의 단발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평가 모델이며, 학생 포트폴리오 평가 내의 질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높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평가의 경우, 진로 교육의 효과성과 더불어 기업, 진로 교육 체험 기관 등 여러 기관들이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 사회에서 진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성과, 고용 및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표 16> 진로 코디네이터 평가 준거

평가 척도	세부 평가 요소
Description (묘사)	- 체험 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 교과 지식, 진로 교육의 수업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체험 활동을 위해 학습자가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 준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 체험 활동 전에 무엇을 기대했는가?
Examination (조사)	- 체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 기술이 필요했는가? -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 어떤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했는가? - *체험 활동에서 자신이 수행한 역할은 무엇인가? -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했는가? - *다른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은 어떠했는가?
Articulation of Learning (학습의 표현)	- 체험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인가? -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과 기술이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 - 체험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자신의 미래의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체험 활동이 자신이 소망하는 직업을 성취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체험 활동이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에는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 - 체험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계획인가?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평가의 경우, 진로 교육의 효과성과 더불어 기업, 진로 교육 체험 기관 등 여러 기관들이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 사회에서 진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성과, 고용 및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표 17> 지역사회 평가 준거

상위 준거	하위 준거
1. 교육 성과	- 교육 훈련 참여 증대 - 교육 성취율, 수준 증가 - 교육 기회 증대
2. 고용 및 경제적 성과	-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 - 노동시장 참여 증대 - 실업 감소 및 고용 유지 - 생산성, 급여 증가 - 편익 비용 감소
3. 사회적 성과	- 사회적 계층 이동성 증대 - 공동체 수용력 증대

6. 탐사의 한계

탐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공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진로교육이 국가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진로교육을 위해 어떤 교사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덴마크와 아일랜드, 영국의 국가 진로교육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탐사를 시도하였으나 기관 사정으로 탐사가 불가능했다. 전환학교 교사, 관련 비정부 단체 운영자 등의 관점에서 국가 진로교육 및 전환교육 시스템을 함께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교육행정 운영자의 관점에서 운영상의 특이사항 혹은 현실적인 한계점, 지향점 등을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진로교육 및 전환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인터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교육의 효과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학생 관점에서 진로교육과 전환교육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도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탐사에서는 탐사 기간인 6월 말-7월 초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기관 관리자 및 교사를 위주로 인터뷰가 진행되어 학생 관점에서의 진로교육과 전환교육 현황을 파악할 기회가 부족했다.

III.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진로연계학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진로연계학기의 도입을 밝혔다. 진로연계학기는 학교급 전환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급 연계와 진로교육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로연계학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진로연계학기 이전에도 학교급 전환기 프로그램(STP: School Transition Program) 등의 진로 교육 정책이 시행된 바 있으나, 소수 교사 집단에 의한 운영과 같은 여러 한계를 남기고 사라진 바가 있다. 따라서 진로연계학기라는 새로운 정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바이다.

연구를 위하여 진로연계학과 관련된 국내 핵심 이해관계자인 학생, 교사, 진로 교육 지원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현재 학교현장에서 진로연계학기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 차원의 매뉴얼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연계학기에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교과 연계 진로교육이나 체험형 진로교육 역시 유의미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전환학기/학년제를 이미 시행 중인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의 학교 및 진로 교육 지원 기관의 현장 답사를 진행함으로써 각 국가별 전환기 진로교육의 성공 요인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 진로연계학기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해외 탐사 분석 결과, 성공적인 진로연계학기 운영을 위하여 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② 지속가능한 진로연계학기 운영 자원 확보, ③ 진로연계학기 운영 교원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 ④ 진로연계학기 운영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위 시사점을 기반으로 진로연계학기의 목표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 평가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연계학기 모델은 교사 및 진로 교육 지원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진로연계학기 운영 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탐색'과 '학교급 연계'에 대한 성공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국내의 진로교육 현황과 해외의 전환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로연계학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과 진로연계학기 운영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공개된 정부 조사 자료와 국내외 진로교육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 기관이 공개하는 진로교육 관련 통계자료와 더불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교사, 진로교육기관 담당자, 학생 등을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진로교육의 장점과 한계점,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전환교육 해외 사례를 종합하여 국내 진로연계학기로 적용하였다. 해외 사례를 단순 분석 및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내 인터뷰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진로교육에 해외 전환교육의 긍정적인 부분을 적용하고 한계점을 보완할 방법을 고찰하였다. 셋째, 진로연계학기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한 진로교육 주체별 역할

을 명시한 교육모델을 개발하였다. 진로연계학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와 진로연계학기의 목표를 기반으로, 진로연계학기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담당하여 개발·추진할 주체를 함께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모델의 적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해외 사례 조사 과정에서 모든 국가의 정부·학교(교사)·학생·전환교육 운영 기관 및 기업의 전환교육 주체를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해 자료가 전환교육을 운영하고 경험하는 일부 개인의 의견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시간상의 한계로 교육모델 개발 이후 현직 진로교사 및 진로교육기관의 자문을 거쳐 모델을 수정하지 못했다는 점, 정보의 제약으로 운영 비용 등 세부적인 교육행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모델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의 한계를 가지므로 후속연구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IV.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지역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체계 마련 - 전국 시·군·구청과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지원에 적극 나서 -.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302&s=moe&fileSeq=b3aff41eacbe7c42f2df63abadd47d2c>
- 교육부.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6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교육부. (2023a).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87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교육부. (2023b). 2023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s://if-blog.tistory.com/14651>
- 교육부. (2024). 2024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초·중·고 교육.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9812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
- 김창제. (2020). 중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사례보고서 [석사학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RISS.
- 꿈길. [웹사이트]. (n.d.). <https://www.ggoomgil.go.kr/front/intro/intro02.do>
- 김기현, 맹영임, 이재연. (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리나, 엄문영. (2024). 자유학기제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단기·장기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 박유리, 박정수, 김철희, 정명진, 심동욱 외. (2019).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산업혁명위원회.
- 박휴용, 송진웅. (2018). 교육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의 갈등요인 분석: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4(2). 7-32.
- 송인섭, 김효원, 남궁정 (2008). 중학생 진로성숙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7(1), 115-132.
- 심수정. (2020). 교과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중·고 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DBpia.
- 윤옥한. (2024).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 계획(2023-2027)의미 분석. 문화기술의 융합, 10(1), 25-34.
- 정문주, 백승환, 최현희, 조준호. (2020).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 “대학은 가라면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921-951.
- 정지은. (2023).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 제도 개선 방향: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6(2). 103-124.

한국교육개발원. (2022). 진로연계학기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제안 외. (MZ2022-344).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khome/main/journal/selectJournalForm.do?plNum0=14651#>